

韓國經濟學史의 批判的 省察

姜 命 圭*

〈目 次〉

I. 序 言
II. 研究方法論의 問題
III. 韓國經濟學의 歷史的 背景
IV. 韓國經濟學의 成長과 構造
V. 結 語

I. 序 言

케인즈(Keynes)는 『一般理論』 末尾에서, 經濟學者의 思想은 그것이 옳은 경우건 틀린 경우건 보통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強力한 影響力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말이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을 可能性은 정말 드문 일이며, 人間이 어떤 利害關係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터없는 誇張이고 오히려 人間은 思想의 물결 속에 잠겨져 있는 存在라고 確言했다. 그는 물론 이 思想의 영향이라는 것이 當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時日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가령 20代以後의 年齡層이 새로운 經濟哲學에 영향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稀有한 일이기 때문에 公務員이나 政治家나 煽動家같은 既成人들이 當面目的을 위해 利用하는 理念은 반드시 最新의 것이 아닐지언정 世上事를 그르치거나 바로 잡는 데 急所가 되는 經濟學者의 思想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社會發展과 그 運營에 대하여 長期的이고 그리고 決定的인 影響력을 발휘하는 經濟思想과 經濟理論이 韓國社會에서 오늘날 어떤 狀況에 놓여 있으며 또 그 歷史的 背景은 어떤 것인가를 素描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目的이다.

한 나라의 經濟學의 狀態(state of economics)를 論함에 있어서 考慮해야 될 몇가지의 問題가 있다. 그 첫째는 오늘날처럼 經濟學의 內容이 그 研究對象이나 分析方法에 있어서나 그리고 教育科目과 教科書에 있어서 까지도 國際間에 共通化되어 갈 뿐 아니라, 研究成果를 交流하는 專門誌도 世界共有의 財産이 되고 있는 傾向에 있는 터에 果然 韓國經濟學의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特有한 性格을 摘出할 수 있는가 하는 疑問이다. 우리가 學生을 教育하고 또 研究하고 있는 經濟學的 知識이 西歐의 學問이고 그것이 世界共通의 財産이 되어 있는 限 韓國經濟學은 世界(一般)經濟學的 體系 속에 포섭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는 當然한 의문이다. 물체는 그래도 단일 韓國經濟學이 存在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世界經濟學과 어떻게 聯關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經濟學知識의 限界의 增분에 韓國人의 寄與가 어느 만큼이나 되며 또 萬一 韓國經濟學의 水準이 이에 未達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世界經濟學과의 隔差가 어느 程度인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세계의 의문으로는 도대체 韓國經濟學의 狀態는 어떻게 把握할 수 있는가 하는 方法論上의 문제 가 있다.

以上의 의문들은 結局 廣義의 韓國經濟學史내지 韓國經濟思想史의 方法問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經濟學을 自然科學이 아닌 社會科學의 一分野로 看做하는 限 經濟學的 知識과 思想이 韓國人의 體質과 歷史를 통해 濾過되었을 때 어떤 模樣이 되었으며 또 그것이 韓國社會에서 어떻게 受容되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韓國經濟學의 特色은 存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의 韓國經濟學의 歷史的 背景과 그 特色을 解明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선 이의 研究方法論의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II. 研究方法論의 問題

經濟學一般의 發展史를 다루는 方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個別學者들의 業績을 (그것이 論文의 형태든 著書의 형태든) 評價하고 그것이 歷史적으로 미친 (그것이 政策·理論發達·社會一般에 미친) 영향을 檢討하는 方法이며, 이것이 傳統的이고 보다 一般的이라 할 것이다(Coats, 1960). 그러나 오늘날 經濟學的 知識은 加速의인 速度로 成長할 뿐 아니라 그 知識蓄積의 分量이 尨대한 規模에 達하기 때문에 從來와 같이 몇몇 영향력있는 經濟學者들 (star economists)의 著述만을 分析對象으로 삼는 微視的 質의 接近法(great man approach)으로는 到底히 全體像을 包括할 수 없는 實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最近 새로이 登場하기 시작한 것이 統計的 方法이다. 이것은 經濟學이라는 知識體系를 一種의 知識產業으로 看做하고 一般產業에 대한 經濟分析과 마찬가지로 經濟學的 知識生產을 計量的으로 분석하며 그 成長過程과 成長要因을 檢出한다.

이 方法을 韓國經濟學史의 研究에 적용한다는 것은 時期尙早이며 無理가 따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觀察의 視角을 多元化시키는 데 參考가 될 것이므로 이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經濟思想史의 統計的 研究의 효시는 스티글러(G. Stigler, 1964)에 의해 啓發되었는데, 그는 일찌기 이 方法에 의하여 英國 古典派經濟學의 專門化過程과 美國經濟學의 土着化 및 數理化過程을 實證한 바가 있다. 이것이 契機가 되어 經濟學의 職業集團(economics profession)을 統計的·計量的으로 다룬 研究가 續出한 바 있으며, 그 중 로벨(M.C. Lovell, 1973)의 試圖는 經濟學知識의 成長構造를 餘他學問의 그것과 比較하는 眼目을 제시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그는 美國에서의 經濟學知識의 生産을 學術論文數와 經濟學者의 供給數(Ph. D.의 輩出數나 美國經濟學會 會員數같은)를 指標로 그 成長率을 산출한 結果 化學·物理學·生物學·數學 등 自然科學이 複利的 成長法則을 나타내면서 약 15年마다 2倍로 증가하는 데 비해 經濟學은 1885~1965年 間에 있어서 年 5.05%의 成長率과 每 13.7年마다 倍加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經濟學의 生産(=學術)活動의 高度成長을 지명하는 決定因은 무엇이며 그 生産物로서의 經濟學知識의 生産函數가 規模에 대해 收益遞減的인지 遞增的인지, 그리고 일단 生産된 經濟學知識은 얼마의 속도로 減價(=陳腐化)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論文產出高(article output)가, 經濟成長을 測定하는 指標로서의 GNP보다는 못하지만 經濟學知識의 成長尺度로서 利用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特定年度以前($t-\tau$)에 生産된 論文의 t 年度에 있어서의 生産性이 다음과 같은 減價函數(depreciation function)에 따라 低下된다고 假定하고

$$d(t-\tau) = e^{-\delta(t-\tau)}; \delta \geq 0, t-\tau > 0 \quad (1)$$

$-\infty$ 에서 적어도 時系列資料가 開始되는 時點까지 t 時點에서의 發表論文數가 複利成長法則에 따라

$$A(t) = ae^{\rho t} \quad (2)$$

로 成長한다고 假定하면 t 時點에 있어서의 純資本스톡크는 이렇게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K(t) = \int_{-\infty}^t ae^{\rho\tau - \delta(t-\tau)} d\tau = ae^{\rho t} / (\rho + \delta). \quad (3)$$

이것은 時系列의 開始年度까지의 論文스톡크를 推定하는 可能的 最善의 節次가 될 것이고, 그 以後의 論文產出高의 스톡크는 적절한 減價償却을 許用하여

$$K_t = (1 - \delta)K_{t-1} + A_{t-1}; t > i \text{ (時系列開始年度)} \quad (4)$$

가 된다.

한편, 勞動投入의 指標로서는 美國經濟學會에 대한 會員加入數나 博士輩出의 累積總數의 두가지 중 前者의 歪曲可能性이 크므로 後者를 기준삼기는 하지만 人間資本의 減價方法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가 따른다. 自然死亡이나 隱退者의 數値는 無視한다 하더라도 大學

院에서 배운 研究方法이 技術의 陳腐化로 退化할 뿐만 아니라 學内の 補職이나 學外活動으로부터의 壓力과 老衰過程(aging process) 그리고 테뉴어(tenure) 획득 이후의 老壯敎授들의 職業保障으로 인한 生産性低下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減價率을 許用하는 勞動投入은 이렇게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L_t = (1 - \delta')L_{t-1} + PhD_{t-1} \tag{5}$$

그리고 特定年度까지의 勞動스톡크는

$$L_t = \int_{-\infty}^t \alpha' e^{\rho'(t-\tau) - \delta'(t-\tau)} d\tau = \alpha' e^{\rho't} / (\rho' + \delta') \tag{6}$$

가 되고 여기서 PhD_t 는 t 年度에 있어서의 博士産出數이고 파라메터 δ' 는 引用頻度에 관한 橫斷面資料(cross-sectional citation data)에 의해 外生的인 推定테이타로 얻어진다.

以上の 資本스톡크와 勞動投入式을 이용해 經濟學知識創出過程에 관한 集計의 콰·더글라스型 生産函數를 導出하면 이와 같다.

$$A_t = \alpha K_t^\lambda L_t^{1-\lambda} e^{\epsilon_t}, E(\epsilon_t) = 0 \tag{7}$$

여기서 ϵ_t 는 正常分布의 攪亂項을 나타낸다.

로벨은 이 論文에서 (7)式에 여러가지 파라메터를 代入하여 回歸分析한 10個의 推定値를 比較하면서 그 長短點을 檢討하고 특히 論文生産에 대한 需要變動의 構造 및 그 영향의 문제라든가 技術變化의 문제를 減價係數 또는 陳腐化 및 退化의 문제와 어떻게 聯結시켜 經濟學論文의 生産性을 測定할 것인가 하는 未解決의 爭點을 提起하면서도, 솔로우(R. Solow)의 成長模型에서도 이 문제는 滿足스러운 段階가 아님을 指摘하고 있다.

여기서 經濟學的 知的 活動에 관한 時系列推定을 보다 正確하게 나타내는 데 有用한 情報源으로서 論文에 대한 引用頻度資料(citation frequency evidence)의 研究가 등장한다. 이들 學者들은 引用頻度接近法(citation approach)이라 하는데, 위의 式 (1), (3), (5), (6)의 파라메터 δ 와 δ' 가 그것이다.

一般 産業生産物의 價値는 市場價格이라는 尺度로 測定되지만 學術論文의 價値는 市場評價를 直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가령, 經濟學者가 받는 授業料나 俸給 같은 測定資料로 學者의 價値評價를 하는 경우 講義負擔, 學生의 質, 研究施設 또는 測定안되는 心理的 所得(psychic income) 등으로 인해서 그 價가 歪曲될 素地가 충분하므로 어떻게 보면 苦肉之策으로 개발한 것이 引用頻度接近法이라 할 수 있다. 論文의 引用頻度は 既存의 業績(被引用論文)의 經濟學知識寄與度を 測定할 수 있는 當該時點의 指標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經濟學者들의 文獻引用에는 敵과 친구 또는 贊成者와 反對者가 모두 등장하고 또

自己論文을 인용하는 경우조차 있기 때문에 集計資料에서 이를 모두 가리키는 어렵다는 限界는 있지만, 引用頻度構造의 分析에 의해서 個別研究論文이나 著者, 學術誌, 大學院 등의 相對的 質을 推定하는 데는 廉價의 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方法은 뿐만 아니라 hard science인 餘他分野에서도 活用되고 있으므로 經濟學職業集團의 行爲와 質에 관한 學際的 比較研究의 길도 열어주는 셈이다. 가령, 美國의 4大 主要學術誌(*American Economic Review*, *Econometric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의 1965년의 標本資料에서는 論文當 平均引用件數가 10인 데 비하여 化學誌의 18, 醫學誌의 4~5와 對照되고 있다.

이 引用資料分析에 의해 測定可能한 몇가지 事實 중 우선 注目되는 것은, 가령 經濟學者들은 知識의 增大活動을 날이 갈수록 學術誌를 중심으로 展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引用對象의 30.8%가 著書인 데 비하여 52.4%가 學術誌라는 사실(1950年代 以前으로 갈수록 逆轉)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또는 社會學에서는 總引用의 40%만이 社會學誌의 論文인 데 비하여 經濟學誌들은 壓到的 比率이 經濟學分野의 學術誌에서 引用할 뿐 아니라 20%는 同一學術誌間의 引用이라는 點에서 본다면 經濟學者들의 自足主義 또는 同族中心主義(ethnocentric)의인 行動類型과 自給率(self-feeding ratio—R. Eagle, 1975)이 相對的으로 높음을 確認할 수 있는 등이다. 이 問題를 다시 國際比較의 觀點에서 보면 英國經濟學者들의 自國人論文 引用頻도가 全體引用頻度の 倍인 데 반해서 美國經濟學者들은 그것이 50%以下인 點에서 前者의 높은 自給率과 따라서 關心領域과 接近法의 閉鎖性을 示唆하고 있으며, 한편 二次大戰後 50年代中葉까지는 國際誌에서 英國人論文引用比率이 높았으나 그 이후 美國人論文의 引用比率이 커짐으로써 經濟學의 美國化(Americanization)를 확인한 바도 있다.

둘째로 判明되고 있는 사실은 被引用의 頻도가 가장 많은 經濟學者 또는 論文(most cited economists or articles)을 確認함으로써, 이른바 스타 經濟學者를 發見할 뿐 아니라, 그 影響力까지 測定할 수 있다는 利點이다. 물론 學者의 業績을 發表著作數나 그 分量으로도 측정할 수는 있겠으나 引用頻度分析法 이후에는 역시 最多引用率이 學者의 質을 나타내는 기준이 됨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 點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引用되는 著者라고 해서 반드시 노벨賞受賞者에 해당한다고 盲目的으로 믿는 것은 당지도 않다는 警告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經濟學分野에서 1920年代以來 每10年の 間격을 두고 가장 頻繁히 引用된 經濟學者들을 確認하고 이들의 業績의 質을 評價하는 데 더 나은 方法이 없다고 結論을 내린 쿼트(R. Quandt, 1976)의 論文이 있다.

그러나 經濟學(者)의 生産物인 論文이나 그 中間生産財로 간주되는 Ph. D.의 生産能力도

〈表 1〉 被引用頻도가 가장 높은 經濟學者들

1920		1930		1940	
C. Gini	12	A. Marshall	11	J.R. Hicks*	22
H.G. Moulton	9	J.M. Keynes	11	J.M. Keynes	17
A.C. Pigou	6	H.L. Moore	10	F.A. Hayek*	16
W.S. Thomson	6	F.H. Hansen	8	F.H. Knight	13
P.F. Brissenden	5	A.C. Pigou	8	E. Ginsberg	12
A. Marshall	5	L. Robbins	8	A.H. Hansen	12
W.C. Mitchell	5	F. W. Taussig	8	J.D. Black	11
J.S. Nicholson	5	C. Davenant	7	R. Frisch*	11
E.G. Nourse	5	H.G. Moulton	7	G. Haberler	11
F.W. Taussig	5	W. Petty	7	N. Kaldor	11
P.H. Douglas	4	J.A. Schumpeter	7	J. Tinbergen*	11
I. Fisher	4	J. Viner	7	M. Ezekiel	10
L.H. Haney	4	N. Allen	6	J.M. Clark	9
J.M. Keynes	4	H.G. Brown	6	P.H. Douglas	9
W.F. Ogburn	4	E. Frickey	6	J.J. Spengler	9
E.R.A. Seligman	4	P. Wicksteed	6	T. Balogh	8
D.A. Tomkins	4	P.G. Wright	6	E.D. Domar	8
S. Webb	4			J. Viner	8
				J. Robinson	8
				J.R. Commons	7
				R.F. Harrod	7
				F. Machlup	7
Total	18		17		22
1950		1960		1970	
J.A. Schumpeter	42	P.A. Samuelson*	42	K.J. Arrow*	68
P.A. Samuelson*	38	M. Friedman*	35	M. Friedman*	68
J.R. Hicks*	30	L.R. Klein*	33	R.M. Solow	53
W.C. Mitchell	23	J.R. Hicks*	28	P.A. Samuelson*	51
A.H. Hansen	21	H.A. Simon*	26	J. Tobin*	48
L.A. Metzler	21	R. Frisch*	25	Z. Griliches	41
F. Machlup	17	J. Robinson	25	D.W. Jorgenson	38
O. Lange	16	R.M. Solow	24	F. Modigliani	38
A. Marshall	16	J. M. Keynes	21	H.G. Johnson	37
S.H. Schlichter	15	A. Marshall	21	H.B. Chenery	36
F.H. Knight	14	L.A. Metzler	20	M. Nerlove	33
W.W. Leontief*	14	W.J. Baumol	19	L.R. Klein*	31
E.D. Domar	13	R. Dorfman	19	H. Theil	29
R.F. Harrod	13	G.J. Stigler	19	J. Johnston	26
E. Ginsberg	12	R.F. Harrod	18	E.S. Phelps	26
J.M. Keynes	12	K.J. Arrow*	17	A. Zellner	26
V. Pareto	12	H.G. Johnson	17	O. Eckstein	25
A.C. Pigou	12	N. Kaldor	17	R. Eisner	24
J. Viner	12	S. Kuznets*	17	G.J. Stigler	24
C. Clark	11	A.W. Phillips	17	G.S. Becker	23
F.D. Graham	11	F.A. Hayek*	16	W.J. Baumol	22
G. Haberler	11	T.C. Koopmans*	16	J.M. Tintner	22
T.C. Koopmans*	11	J. Tinbergen*	16	B. Balassa	21
J. Robinson	11			A.S. Goldberger	21
				G. Debreu	20
				J.R. Hicks*	20
Total	24		23		26

出處: R. Quandt, "Som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s Journal Litera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ug. 1976, p. 754.

註: (1) 人名 옆의 數字는 被引用頻度이고, *는 노벨經濟學賞 受賞者임.

(2) 英美의 8大 主要學術誌를 데이터 베이스로 한 것임.

不減의 것이 아니라 壽命이 있고 또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減價 및 陳腐化過程을 어떻게 測定하는가의 문제가 뒤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半壽命 또는 半減年數(half-life)라는 概念이 이용되고 있는데 當該論文의 引用頻도가 絶頂期の 切半으로 떨어지기까지의 經過年數로 나타낸다. 平均半壽命은 $\frac{1}{a}e^{1/2}$ 로 표시되는 바 이것은 한 論文이 e^{-at} 의 率로 引用頻도가 下落함을 뜻하지만 그 測定値는 年引用率이 絶頂値의 切半이 되는 點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측정한 經濟學論文들의 半減年數는 5.5年(로벨, 1973)--그러나 보르도(Bordo)와 란다우(Landau)는 5.4年--인 데 반하여 物理學과 生醫學은 4年, 社會學은 經濟學과 마찬가지로 5.5年임이 判明되고 있다.

한편, 論文을 執筆하는 사람의 生産性이란 觀點에서 볼 때는 當該論文出版時의 平均自然年齡 $38\frac{1}{4}$ 歲, Ph.D.年齡 $7\frac{1}{2}$ 年이 經濟學者의 半減年齡이라는 計算이 나와 있으며, 또한 名聲이나 知名度라는 觀點에서 볼 때는 被引用年度에 있어서의 筆者의 年齡이 平均自然年齡 45歲, Ph.D.年齡 $14\frac{3}{4}$ 年으로 나타나 前記한 生産性의 半壽命에 비해 知名度의 半壽命이 훨씬 길고 더구나 Ph.D.年齡은 2배나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經濟學의 論文과 Ph.D.의 生産性은 筆者의 自然年齡이 38歲를 지나거나 Ph.D.學位取得 후 7年半이 경과되면서 急降下하는데도 그의 名聲은 나이가 圓熟해짐에 따라 相當期間 持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以上の 計量的 研究方法에서 우리는 成長의 規模가 老大하고 速度가 加速的으로 變하고 있는 오늘날의 經濟學의 歷史를 分析하는 데 있어서는 在來의 方法으로는 매꿀 수 없는 巨視的이며 構造的인 問題가 있기 때문에 統計的내지 計量的 檢證이 必要함을 確認한 셈이지만 이것은 비단 經濟學知識의 量的 成長 뿐만 아니라 微視的으로 본 個別學者나 個別論文의 質에 관한 客觀的 評價의 手段도 제공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서도 注目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베이스의 選定問題라든가 統計處理의 技術上의 問題 등 許多한 未解決의 問題로 인한 限界性이 들어나 있는 점으로 해서도 이 方法이 一般的으로 通用되기에는 時期常 무라고 判斷되며, 더구나 韓國經濟學史의 實像分析에 應用하기에는 이미 資料問題부터 適切하지 못하므로 아직은 不可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서 구태여 張皇하게 이 方法을 소개한 理由는 在來의 方法의 限界를 明示하고 韓國經濟學의 實像에 있어 未觀察된 側面에 대한 理解를 돕게 되리라는 希望에서 비롯된 내 지나지 않는다.

以下에서 韓國經濟學의 構造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在來의 制度·歷史的인 觀點과 더불어 可能視되는 統計的 考察을 折衷하고 또한 必要에 따라 外國의 事例들과의 比較의 方法도 援用하려고 한다.

III. 韓國經濟學的 歷史的 背景

西歐經濟學이 韓國人에게 처음으로 紹介된 舊韓末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歷史의 進展에 따라 經濟學의 狀態와 經濟學者들의 條件이 變遷되어 온 만큼, 韓國經濟學史도 그 時代相況과의 關聯 속에서 照明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韓國經濟學의 歷史的 背景으로서 舊韓末(1897~1910), 日帝植民地時代(1910~1945), 解放後로 時代區分하고, 解放後는 다시 6.25까지와 1950年代·60年代·70年代의 時代的 背景을 기준으로 하여 經濟學의 構造的 變化와 그 特徵을 檢出해 볼까 한다.

〈表 2〉 期間別 經濟學文獻 總發刊趨勢(1897~1979)

期 間 ⁽¹⁾ 種 類	1897~ 1909	1910~ 1945 ⁽²⁾	1945 ⁽³⁾ ~1950	1951~ 1960	1961~ 1965	1966~ 1970	1971~ 1975	1976~ 1979 ⁽⁴⁾	合計
論 文 ⁽⁵⁾ (外國語) ⁽⁶⁾	157 (1)	1,648 (379)	419 (0)	253 (23)	667 (132)	1,224 (132)	2,229 (275)	1,219 (169)	7,815 (1,111)
學位論文 (外國語) ⁽⁷⁾	—	6 (6)	—	16 (14)	22 (19)	86 (35)	202 (65)	75 (34)	408 (173)
譯 書 (論 文) ⁽⁶⁾	17 (9)	49 (21)	79 (21)	145 (1)	65 (3)	29 (4)	96 (39)	54 (16)	534 (114)
著 書	12	54	64	156	235	153	306	292	1,272

資料：李基俊編著, 『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1980.

大韓出版文化協會, 『韓國出版年鑑』, 1954~1980.

註：(1) 期間의 區分에 關係서는 本文을 참조할 것.

(2) 1945. 8. 15以前 (以下の 모든 表가 이와 같음).

(3) 1945. 8. 15以後 (以下の 모든 表가 이와 같음).

(4) 利用可能한 資料의 制限으로 이 期間은 他期間과의 比較에 要注意.

(5) 1897~1950까지는 各種雜誌, 1951以後는 專門學術誌의 論文篇數임.

(6) 1945年까지는 日語, 그 以後는 英語가 大部分이고 其他外國語가 약간임.

(7) 大部分 英語이고 약간이 기타 外國語임.

1. 舊韓末의 經濟學書

1910年 韓日合邦以前까지 舊韓末에 있어서 韓國의 經濟學은 어떤 狀況이었는가? 西歐式 經濟學의 導入過程과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記錄上으로 알려져 있는 最初의 文獻들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舊韓末 經濟學關係 單行本

一般經濟學：

李弼善譯, 『普通經濟學』, 黃成館, 1907, 180面, 原著者未詳.

朴晶東譯, 『經濟原論』, 金雨均發行, 1907, 110面, 原著者未詳.

金雨均譯·朴晶東校閱, 『經濟原論』(經濟學教科書), 鄭喜鎮發行, 1907, 104面, 原著者未詳.

和田坦謙三著·李炳台譯·金鳳俊校閱, 『經濟學教科書』, 大邱廣文社, 1908.

元應常·申海永共著, 『經濟學』, 未詳, 1907~8, 194面.

俞致衡著·申海永校閱, 『經濟學』, 未詳, 1907~8.

朴承鎭·朱定均共著·俞承兼校閱, 『最近經濟學』, 普文社, 1908, 241面.

未詳, 『生計學說』, 林源發行, 1908.

未詳, 『經濟學要義』, 高裕柄書舖, 1908.

未詳, 『經濟通論』, 廣德書館, 1909, 188面.

經濟史：

李採雨譯·元泳義校閱, 『世界植民史』, 廣學書館, 1907, 原著者未詳.

俞承兼譯述, 『萬國史』, 未詳, 1907.

卞榮晚, 『二十世紀大慘劇帝國主義』, 廣學書館, 1908.

金大熙, 『二十世紀朝鮮論』, 未詳, 1907.

貨幣·財政理論 및 其他分野：

李弼善譯, 『貨幣論』, 普成館, 1907, 256面, 原著者未詳.

劉文相譯·申海永校閱, 『銀行論』(上·下), 普成館, 1907, 237·140面, 原著者未詳.

劉文相譯·申海永校閱, 『財政學』, 未詳, 1907~8, 174面.

金大熙, 『商業汎論』(上·下), 未詳, 1907.

劉玟鉉, 『外國貿易論』, 未詳, 1908.

張志淵, 『商業學』, 未詳, 1907.

出處：李基俊編著, 『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1980.

註：著譯者, 題目, 發行者, 年度, 面數, 備考順임.

以上과 같이 記錄上으로 알려진 20卷의 經濟學關係單行本 중 8卷이(大部分 原著者未詳의) 번역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1907~8 兩年間에 集中的으로 多數의 經濟學書가 出版되었다는 것은 特記할 만한 事實이다.

韓國人이 最初로 西歐經濟學과 그 思想에 눈이 떠서 啓蒙的 水準이나마 이를 消化하기 시작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1876年의 開港以後 물밀듯 밀려나온 近代文物의 影響이 있다. 그러나 開國後의 四半世紀는 國內外的 政治·社會的 混亂과 突風 속에 휘말려 있다가 開化思想의 受容態勢가 漸進的으로 整備되면서 經濟學에 대한 開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생각컨대 이 經濟學受容過程은 漸進的이기보다는 急進的으로 擴大되어 갔다고 짐작되는데 그것은 위의 單行本の 集中的 刊行과 때를 같이 하며 經濟學關係의 論文이 이 時

〈表 3〉 分野別 經濟學文獻 構成(1897~1909)

種 類	分 野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合計
著	書	8	1	—	1	1	—	1	—	—	—	12
譯	書	6	—	—	2	—	—	—	—	—	—	8
論	文	39	39	1	21	6	—	15	28	6	2	157

資料：〈表 2〉와 同一.

註：分野別의 記號는 美國經濟學會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分類體系에 의한 것임. 以下 諸表의 大分類·中分類의 內容에 관해서는 〈附表 1〉을 참고할 것.

期에 (번역논문을 포함하여) 160餘篇이나 발표된 것으로도 짐작이 가는 것이다. 日本 東京 留學生들에 의한 『親睦會報』(1897年 9月)에 실린 魚啓濟의 「經濟學概論」과 吳聖模의 「分業과 合力의 關係」이 두 論文이 우리나라 最初의 經濟學論文으로 알려져 있으나 1906年頃부터 一般經濟學 45편(번역 6편), 經濟發展 41편(번역 2편), 貨幣 및 財政 21편, 農業 28편, 기타 各分野 31편의 論文 또는 論說이 韓日合邦前夜의 數年 사이에 쏟아져 나온다.

그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論文들은 例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舊韓末 經濟學關係 論文들의 例示

一般經濟學：

- 俞承兼, 「經濟學을 讀하다가 儒學의 現狀을 歎賞」, 『大東學會月報』, 3 (1908).
- 尹成熙, 「德義心과 經濟學의 關係」, 『普專校友會』, 6 (1907).
- 法律讀書人, 「分業의 種類及利害」, 『大東學會月報』, 7 (1908).
- 尹學鉉, 「生産을 論함」, 『共修學報』, 3 (1907).
- 洪正裕, 「物의 價値」, 『幾湖興學會月報』, 2 (1908).
- 李承瑾, 「經濟學의 必要」, 『大韓學會報』, 1909.
- 李致承, 「經濟學說」, 『普專校友會』, 1 (1906).
- 李豐載, 「英國의 國民主義와 經濟思想」, 『大韓學會報』, 6 (1907).

經濟發展：

- 崔永植, 「工業의 必要」, 『親睦會會報』, 5 (1897).
- 張志淵, 「國家貧弱之故」, 『大韓自強會月報』, 6 (1906).
- 吳炳鉉, 「本國地質의 相當한 物産論」, 『大韓自強會月報』, 12 (1907).
- 張弘植, 「國家와 國民企業人의 關係」, 『太極學報』, 6 (1907).
- 金光濟, 「工業發達의 富強之源」, 『大同報』, 2 (1907).
- 崔錫夏, 「韓國民族의 經濟方策」, 『大韓學會月報』, 4 (1908).
- 李謙來, 「興國富民不如興民富國」, 『嶠南教育會雜誌』, 1909.

權東鎭, 「實業精神의 如何」, 『大韓協會會報』, 1908.

全永爵, 「經濟의 恐慌을 論함」, 『太極學報』, 2~4 (1906).

貨幣 및 財政 :

法律讀書人, 「貨幣의 本質」, 『大東學會月報』, 5 (1908).

崔秉瓚, 「日本貨幣制度」, 『普專校友會』, 16~19 (1908).

李漢卿, 「銀行과 經濟發達의 關係」, 『大韓留學生會學報』, 1 (1907).

李昌煥, 「相當한 事業엔 相當한 財政을 要함」, 『大韓學會月報』, 1 (1908).

尹學鉉, 「晚近 各國의 歲出이 一般的으로 增加하는 原因을 論함」, 『夜雷』, 1~5 (1908).

農業經濟 및 資源 :

申鎭初, 「造林學之必要」, 『太極學報』, 1 (1906).

畊世生, 「農業의 保護와 改良에 관한 國家의 施設」, 『太極學報』, 17 (1908).

金成喜, 「農業에 土地改良」, 『大韓自強會月報』, 7 (1907).

張志臺, 「石炭」, 『太極學報』, 1 (1906).

其他分野 :

張弘植, 「勞働者와 企業者의 對抗」, 『共修學報』, 3 (1907).

張基榮, 「漢國人口減少의 原因」, 『漢城病院報 共修學報』, 4 (1907).

出處 : 李基俊編著, 前掲書.

위에 例示한 論文들은 오늘의 基準에서 보던 啓蒙的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段階의 韓國知性의 經濟學의 關心의 動向을 표시하기에는 充分한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몇가지 特徵을 살핀다면 첫째 經濟學一般分野에서 經濟學의 基本概念을 解說하는 論文들이 支配的이며 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經濟學問答, 經濟學總論, 經濟學大意, 經濟學大綱 등의 論題로 經濟學概論을 各雜誌에 連載한 例가 許多한 것은 前記한 原論書들의 發刊과 더불어 이 무렵에 있어서 一般的 經濟學知識의 爆發的인 普及과 要請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현상은 經濟發展分野의 論題를 보더라도 感知할 수 있는데 具體的인 發展策의 提案보다는 工業이나 商業 등 實業=產業의 重要性을 強調한 論文이 가장 많고 實業精神, 政府와 企業의 關係 등에서 民富의 增進이 國富의 基礎임을 주장한 古典派의 經濟思想으로써 經濟現象을 理解하고자 하는 態度도 看取되는 것이다.

貨幣財政分野에서는 基礎理論보다는 國債問題에 관한 關心이 컸으며 農業經濟 및 資源分野에서는 農業一般보다도 林業에 관한 關心의 比重이 현저했는데 아마도 當時의 時代相과 關聯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時期에 特記할 論文으로 張弘植의 勞使對立에 관한 것과

全永爵의 恐慌論이다. 大體로 古典派的 立場의 經濟學知識이 導入되던 段階에 있었던 事情으로 미루어 보면 特異한 印象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한 解明은 追後로 미루고 여기서는 以上과 같은 舊韓末의 經濟學의 狀態(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20卷의 著譯書와 166篇의 論文)에 관한 歷史的 背景의 整理를 試圖하기로 하자.

위의 資料에서 제기되는 疑問의 疑問은 왜 1907~8년에 集中的으로 經濟學著述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도 指摘했듯이 開國 후 4半世紀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漸進的으로 經濟學知識이 紹介되는 것이 아니라 急激한 趨勢를 보이는 理由는 무엇인가? 이것은 아마도 舊韓末 政府가 1883년에 設立한 同文學과 그 後身인 育英公院(Halifax School for Interpreters)(1886)을 비롯한 各種外國語學校(1895)가 세워져 開國에 따르는 歐美 및 日本 등 諸外國과의 外交通商業務에 필요한 人材를 養成할 目的으로 外國人教師들에 의한 外國語教育뿐만 아니라 近代西歐學問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데 있어 記錄에 의하면 教科目 중 國際法과 政治經濟學이 專門科目으로 教授되고 있었던 것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姜在彥, 1981). 그리고 1899년에는 商工學校, 1895년에는 法官養成所 등이 官立으로 설립되고 이보다 앞서 1886년의 培材學堂(Pai Chai College), 徽新學校 등 大學部併設의 基督教系 私立學校가 설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關心을 끄는 것은 이같은 初期의 官立系나 基督教系統의 學校에서는 外國人教師에 의한 外國語에 의한 教育이 中樞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經濟學教育의 內容도 西歐教材를 使用했을 可能性이 있다는 推測을 할 수 있을 뿐인데 記錄上 重要科目인 國際法은 「萬國公法」으로서 휘튼(H. Wheaton)著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의 漢譯本(中國駐在 美國宣教師 W.A.T. Martin譯)이 教材로 使用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으나 經濟學教材에 관한 記錄은 없다. 萬一 이들 外人教師들이 사용한 教材가 發見된다면 舊韓末에 經濟學의 歐美直輸入이 아니면 적어도 中國을 통한 導入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周知하듯이 舊韓末의 近代教育機關의 또 하나의 系統은 民族系 私學들이었다. 1898년 設立된 興化學校, 光興學校 그리고 1899년의 漢城義塾(後에 樂英學校로 改稱) 등이 私立學校의 효시를 이루는데 獨立協會指導人士들이 設立한 이들 學校의 教科目中에는 法學, 行政學以外에 반드시 經濟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이와 同格의 私立學校가 京鄕各地에 계속 세워지며 1905년에 비로소 普成專門學校가 認可되어 學部水準의 理財科에서 經濟學教育이 開始된 것이다. 이 普成專門學校의 初代校長 申海永은 우리나라 最初의 經濟學과 財政學의 教材(元應常·申海永共著, 『經濟學』, 1907~8; 兪致衡著·申海永校閱, 『經濟學』, 1907~8; 劉文相譯·申海永校閱, 『財政學』, 1907~8)를 내놓은 에코노미스트로서 日本留學生들에 의한 親睦會會報(1897)에 우리나라 最初로 經濟學概論을 紹介한 魚瑢善과 더불어 우리나라 最初의

私立學校의 하나인 前記 光興學校(1898)의 初代教師出身인데, 申海永이 1895년에 日本 東京의 慶應義塾留學生이었다는 事實은 注目을 要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대한 西歐經濟學 傳播의 最初의 始作은 日本을 통한 것이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近代의 教育 機關設立과 단편적으로나마 經濟學教育을 始作한 것은 分明히 官立·私立의 外人系 學校들이 앞서 있었지만 經濟에 대한 學問的 開眼의 효시는 日本을 통한 것이 始初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81년에 開化派에 의한 最初의 日本留學이 되는 神士遊覽團 78名中 俞吉潯 등 一部가 慶應義塾에서 修學한 이래 1883년에는 徐載弼外 44名 그리고 1895년에는 114名の 政府派遣留學生이 慶應義塾에서 修學한 事實로 미루어 볼 때 이 教育機關의 韓國經濟學 初創期에 대한 影響은 至大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19世紀末부터 수많은 近代式 教育機關의 設立과 外國(主로 日本)留學生들의 歸國이 시작되면서 西歐經濟學에 관한 教材出版과 論說이 活況을 띠기 시작한 것이 1907년 前後가 아니었던가 한다. 때마침 國家存亡의 危機를 當하여 經國濟民의 學問에 대한 新知識의 渴望이 다른 어느 分野보다도 強했던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둘째번의 문제는, 主로 日本을 통해서 導入된 西歐經濟學의 內容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當時의 日本歷史에서 福澤諭吉의 位置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韓國 最初의 그리고 多數의 有能한 留學生을 受容했던 慶應義塾의 設立者 福澤은 明治維新(1868) 初부터 스스로가 日本 最初의 經濟學講義를 담당하면서 「脫亞入歐」의이며 儒教를 文明의 敵」으로 보는 徹底한 西歐思想을 펴고 있었는데 이 때 그가 사용한 經濟學教材가 美國人 웨이랜드(F. Wayland)의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1837)로서 1872년에서 98년 사이에 『英氏經濟論』이라는 題名으로 日譯되었다. 물론 日本에는 이미 이보다 앞서 英國人 엘리스(W. Ellis)의 *Outlines of Social Economy*(1846)가 1867년에 『經濟小學』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었고 이 두 教材는 古典派體系에 입각한 一種의 經濟學解說書였다. 韓國留學生들이 福澤에 의하여 웨이랜드의 『英氏經濟論』의 影響을 받았음은 不問可知이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 것은 사실 日本에서는 韓國人들의 留學開始以前에 이미 1860年代의 上記한 亞流의 入門的 經濟學紹介의 段階를 벗어나 1876~87년 사이에 스미드·리카도·멜더스·밀 같은 古典派經濟學書가 대부분 번역되거나 소개되고 있었다. 이리하여 日本最初의 經濟學書(『經濟小學』)가 나온 1867년부터 韓國人의 留學이 活潑하던 1897년까지의 30年 間に 日本에서는 英·美·獨·佛의 책뿐이 아니라 和·伊·벨기에語에 이르기까지 勿驚 274卷의 西歐經濟學原典이 번역 출판되었던 것이다(高橋誠一郎, 1953). 그렇다면 日本에서 19世紀末까지 西歐經濟學原典의 相當部分이 번역 소개되어 있었다고 보겠는데, 그러나 이미 이때 西

歐에서 1870年代에 시작되어 1890년대에는 古典派를 대신해서 經濟理論을 主導하기 시작한 新古典派의 限界理論이나 마르크스經濟學의 導入은 開始되지 않았던 것 같다.

經濟思想面에서 볼 때 古典派의 自由主義經濟思想이 福澤以來 主導的으로 導入되다가 1880年代 後半부터는 保護主義經濟思想이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獨逸歷史學派인 리스트의 『經濟學의 國民的 體系』가 『李氏經濟論』이라는 書名으로 口譯된 것이 1889년이므로, 初期 韓國留學生의 相當數가 自由主義經濟思想이 支配하던 樣相 뿐만 아니라 異質의인 歷史學派의 保護主義經濟思想의 存在도 맞았을 可能性은 충분히 있다. 東京大學教授인 和田眞謙은 獨逸留學後 이미 1884년부터 東京大學의 經濟學教育體系와 內容에 獨逸新歷史學派를 소개하기 시작한 人物인데 그의 『經濟學教科書』가 李炳台譯·金鳳俊校閱로 1908년에 大邱廣文社에서 출판된 바 있음은 위에 소개한 바와 같다.

英美系의 入門經濟學의 啓蒙的 紹介의 段階에서 英國古典派의 自由主義經濟學 導入을 거쳐 獨逸歷史學派의 保護主義내지 國家主義的 經濟思想이 受容되기 시작한 段階에, 後者의 傾向이 강한 官立 東京大學이 아닌 前者의 色彩가 뿌리깊은 私立 慶應義塾에서 修學하게 된 舊韓末 韓國留學生들은 적어도 經濟學知識이나 經濟思想面에서 相當한 混亂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왜냐하면 위의 和田의 『經濟學教科書』가 新歷史學派의 立場인 것은 물론이지만 魚瑤善의 論文「經濟學概論」은 價値論의 說明이 「物品이 價値를 지니고 잇는 原因이 二者가 有하니 一은 그 數量이 有限되는 것이요 二는 人類의 要用必須되는 것이요 云云」한 點이라든가 「그러나 實은 價値잇고 잇는 是은 時勢와 事實을 조차 變하는 것이라 하오 云云」(p. 43)의 대목을 보면 限界概念이 缺如된 效用價値理論에 近似하나 不正確한 表現이고 朴承鎔·朱定均共著의 『最新經濟學』은 生産·交易(換)·分配의 三分法에 의한 古典派의 體系를 따르면서도 마샬, 제론스 등 新古典派學者가 소개되어 있고 經濟學을 純正經濟學과 應用經濟學으로 兩分하였으며, 「英國學派의 一部分은 演繹法을 重視하고 歸納法을 不顧하는 表現이 有함으로 其唱道하는 마는 往往 事實에 背馳하여 人으로써 空論妄說이라 함에 至하얏으며 此와 反하여 獨逸歷史學派는 歸納法을 尊重하고 演繹法을 排斥하는 傾向이 有하여 畢竟 經濟學은 一定不變의 眞理, 原則이 無하다 云함에 至하얏스니, 蓋此二派는 共히 其中을 失함者」라 謂호지로드다」(p. 13)하며 歷史學派와 古典派의 經濟學方法論을 論하는 한편, 價値論의 說明에서는 「財貨를 尊重히 하여 價値를 付與함은 其限界의 効用에 其因하니니 財貨의 數量을 增加할 時는 此를 因하여 滿足케 할 欲望이 次第로 薄弱호 程度 或種類에 移함으로써 財貨의 限界의 効用도 또한 低落하여 主觀的 價値는 此를 應하여 減少함에 至하느니 云云」(p. 85)한 것은 限界效用價値論을 明示하고 있다. 한편, 政策論에서는

스미드의 競爭的 個人主義와 平等的 社會主義를 共히 배격하고 個人的 自由·權利를 尊重하는 同時에 必要的 部分은 制限을 加하는 社會改良主義를 提唱하며 國家가 담당할 經濟政策의 範圍를 列擧한다. 이렇게 보면 同書는 이미 古典派經濟學의 退色段階를 如實히 보여 주는 教材로 判定된다. 舊韓末의 韓國經濟學은 19世紀末 日本經濟學界의 雜多한 狀況을 消化不良인 채 그대로 反映한 翻案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

2. 實學派 經濟思想과의 連繫性

다음의 문제는 이때의 日本을 濾過한 亞流의 西歐經濟學의 知識이나 思想이 從來에 粹터은 開化思想에 調和된 것임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하겠으나, 그렇다면 英正祖期의 實學派 經濟思想과는 어떤 連繫性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朝鮮朝傳來의 傳統思想인 性理學의 哲學을 空理空談의 虛學으로 批判하고 實事求是와 利用厚生·經世致用을 내세운 洪大容·朴趾源·朴齊家·李瀾·丁若鏞·柳馨遠·柳壽卍 등 18世紀 英正祖代를 풍미한 實學派의 經濟思想이 19世紀後半의 開化期에 一世紀나 앞서 꽃피고 있었다고 한다면 開化期의 西歐經濟思想에 대한 韓國社會의 受容態勢는 完璧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近代化의 他律的 要因이 아닌 內在的인 要因이 粹터왔고 또 結實段階에 到達되어 있었다는 이른바 民族自主史觀이 成立可能할 것 같다(趙璣濬, 1977).

이 문제는 첫째 18世紀의 實學思想이 李朝의 正統的 儒學思想에 대한 革命思想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와의 連續線上에서 보느냐의 爭點과 둘째 1801年의 辛酉邪獄以來 西學의 彈壓이 數世代에 걸쳐 持續되고 衛正斥邪思想이 強化됨으로 因한 實學思想의 衰退를 19世紀末 開化思想과 어떻게 連結시킬 수 있는가의 의문과, 셋째로 이보다 더 重要的 것은 위와 같은 思想面의 激變過程이 現實的 經濟史的 變革에 의해 뒷바침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實學派以來의 近代指向의 思想運動의 起伏이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로의 內發的 變革過程에 어느 만큼 媒介되어 있었는가에 관한 實證經濟史的 研究가 要求된다. 以上 세가지의 問題提起는 部分的인 論議가 있을 뿐 學界의 定說이 아직 確立된 段階는 아니라고 본다(姜在彥, 1981; 姜萬吉, 1973).

여기서 開化期의 經濟學知識의 理解水準을 思想面에서 視角을 달리해 再論해 본다면, 앞서도 지적했지만 19世紀末前後에 續出한 啓蒙的 經濟解說書들의 原產地였던 日本에 이미 古典派經濟學書 以外에 歷史學派의 經濟學이 受容되기 시작한 段階였다는 事實이 開化期 經濟學내지 思想의 性格形成에 미친 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위에 引用한 『最新經濟學』에는 물론이지만 開化期 韓國知性的 最高水準이라 할 수 있는 俞吉濬의 『西遊見聞』(1895)의 第4編「人世的 競勵」나 「競爭論」(1883, 『俞吉濬全書』)에 散見되는 經濟思

想到 있어서도 自由競爭原理를 所望스런 制度로서 그 利點을 詳論하면서도, 自由競爭의 原動力인 人間의 自愛心이나 利己心の 本質이라든가 個人的 私益追求와 社會의 公益達成 사이에 作動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意味를 追求한 『道德情操論』段階의 스미드의 壯大한 道德哲學과 理神論的이고도 自然法思想의 境地에 이르는 省察이 全然 理解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自由競爭의 의미는 기껏해야 下流層의 個人이 立身出世하는 原動力이요 未開國이 先進國을 따라잡는 方法으로 理解되어 있으며 競爭을 維持하는 條件도 勸善懲惡의 方法으로 他律로 強制된 性質로 설명한다. 이 點에서 볼 때 導入期의 經濟思想에 있어서 利己心과 公益의 關係나 「經濟人」을 中心으로 한 自由主義經濟의 本質은 理解되지 않은 채(利己心を 道德的으로 罪惡視하는 段階) 日帝植民地時代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것은 現代의 우리에게도 적어도 哲學的 次元으로는 끝내 未決狀態가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생각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開國後 通用하게 된 經濟學이란 用語에 관한 것이다. 이 用語가 日本의 것을 도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社會에 처음부터 생소하지 않게 받아들여진 理由는 「經世濟民」이란 傳統的 用語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西歐經濟學을 「經世濟民」의 學으로 受容했던 點에 二律背反의 原理가 숨겨져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政府의 干涉을 極力 反對하고 個人的 經濟活動의 最大保障을 강조하는 英國古典派經濟學이 統治의 術 또는 國家學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西歐經濟學의 背後에서 그것을 낳은 思想은 無視해 버린 結果를 가져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經濟學의 導入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近代西歐思想의 受容態度全般에 關聯되는 일이지만, 西歐經濟學의 背後에 있는 國家와 區別된 存在로서의 社會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도 파악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서 말하는 社會란 「市民社會」임을 體驗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지막 古典派經濟學者인 밀의 『自由論』에서 말하는 自由가 社會의 多數派의 專制로부터 지켜야 되는 個人的 自由라는 뜻을 沒理解한 채 西歐經濟學을 論하고 있기 때문에 眞正한 의미의 古典派經濟學과 自由主義經濟思想의 研究 消化段階를 거치지 못했으며, 따라서 國家와 別個의 의미의 社會를 모르기 때문에 近代의 의미의 國家의 本質마저도 誤解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은 本人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舊韓末의 多難한 國際環境下에서 富國強兵을 표방하며 急速히 西歐式의 近代化를 추구해야 되었던 開化運動은 經濟問題의 國家와의 密着을 不可避하게 했고 또 歐美나 日本에서도 그같은 경험의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西歐經濟學을 도입함에 있어서 단순한 治用術내지 政策技術以上の 意味를 除去해 버렸기 때문에 開化期의 經濟思想은 學으로서의 經濟理論이 沒理解된 채 植民地時代로 突入했고 또 이 事情은 解放後

相當期間 계속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물론 이같은 事情은 우리의 西歐經濟學導入源이었던 日本의 실정의 反映이었다고 해도 無妨할 것이다. 日本經濟學은 1890年代前後부터 이미 獨逸後期歷史學派의 영향으로 獨逸留學全盛時代(물론 既成學者들의)를 맞게 되고 「國家의 需要에 應하는 學術技藝를 教授」하는 帝國大學令(1886)에 의한 學問研究體制과 日本版 社會政策學會(1907)가 조직되는 등으로 國家主義色彩가 強化되는 方向으로 치달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獨逸의이며 歷史主義的인 영향의 모든 것을 批判的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日本經濟學의 이같은 親獨的 傾到의 豫期치 않았던 產物이 마르크스經濟學 導入이었으며 1920年代부터 再開된 日本留學에서 배운 韓國人의 經濟學知識이 마르크스主義經濟學 一色이 되다피서 한 原因도 되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19世紀末에 있어서의 日本經濟學의 歷史主義化傾向은 日本만의 特有現象은 또한 아니었다. 人種·文化的으로 보아 英國系文化的 繼承者일 뿐 아니라 獨立의 理念 또한 自由이기 때문에 自由主義經濟學인 英國古典派理論이야말로 美國經濟學의 理想型이었을 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初期 美國經濟學界는 1870~1900 사이의 主要經濟學者 76名中 53人이 獨逸留學을 다녀오지 않으면 學問活動이 어려울 程度였다(J. Parrish, 1967). 이렇게 된 데에는 當時 獨逸이 後進國으로서 急速한 工業化에 成功한 모델이었을 뿐 아니라 有機體的인 經濟社會觀과 保護主義의 經濟政策思想 등으로 歷史學派經濟學에 傾到될 수 밖에 없는 理由가 허다 했기 때문이다. 클라크(J.B. Clark), 엘리(R. Ely), 셀리그만(E. Seligman), 피셔(I. Fisher) 등 우리에게 낯익은 初期 美國經濟學者들이 모두 이 時代의 學者들이다. 그러나 經濟學이 美國社會에 定着되면서 「學問(science)으로서의 經濟學을 神學的·倫理的·歷史社會的 連繫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宣敎的 熱情과 政治的 黨派性으로부터 獨立된 學究的 分野」로 만들려는 傾向이 支配하기 시작하자 獨逸歷史學派의 威勢가 衰退하여 갔고, 다만 그 肯定的인 特徵의 命脈의 一部가 매블렌(Veblen) 등에 의하여 制度學派의 形態로 轉換되어 갔던 것이다(Coats, 1960).

슈메터(Schumpeter)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經濟學이 확립되기 以前에 「經濟學의 古典的 狀況의 時期」라 할 수 있는 準備期가 緩慢한 過程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西歐經濟學의 淵源은 첫째 數世紀間에 걸쳐 展開되어 온 市場經濟(政府의 손을 떠난 意味의)에 관한 知識의 蓄積과 概念的 裝備가 哲學者들의 研究나 論爭에서 豊富히 쌓여져 왔다는 것과, 둘째는 이와 關聯은 되지만 一但 獨立的으로 實務者들 사이에 전개된 時事的 經濟問題에 관한 論議와 概念과 思考의 蓄積이란 두가지가 준비된 條件에서 출발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實學派의 經濟思想을 이 觀點에서 본다면 어떤 評價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問題提起를 하는 이유는 經濟思想面에서 自主的이고 內發的인 近代化의 畧이 連續되었는지를 確認하고자 하는 데 있다. 18世紀 實學派 思想家들이 末業觀을 打破하여 四民水平思想을 제시하고 商業流通과 貨幣·土地問題와 技術問題에 이르기까지 經濟에 관련되는 近代指向的 思想體系를 確立한 것은 分明하나 筆者의 寡聞 탓이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모든 經世致用·利用厚生·實事求是의 思想內容에서 첫째는 진정한 의미의 市場原理(國家나 政權·施策에서 分離된 抽象的인)라는 개념을 思索했는가? 그리고 統治術의 立場에서의 制度改善策의 次元以上の 人間心理의 欲望構造까지 哲學的으로 파들어 갔는가의 의문과, 둘째는 그들이 大體로 在野知識人이었다는 點에서는 農民이나 商工人 등 生産者의 立場을 理解하는 便이 있으나 적어도 實業에 直接 從事한 人物들이 아니었다는 事實에서 숨겨져 가 말하는 經濟學의 古典的 狀況의 時期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해도 옳은 것인지? 등의 判斷이 어렵다. 學者의 哲學的 抽象的인 理論과 商工業者의 體驗的 思考가 融合되어 다듬어져 가는 過程으로서의 重商主義時代는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의 準備過程이 뒷받침되는 時期였다고 볼 때 이 時期 韓國經濟史와 經濟思想史에 關한 謀介關係의 研究가 切實히 要求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에 關하여 一說에는 「星湖의 단계에서의 政治社會에 있어서의 統治者에 대한 被治者(民)의 相對的 獨自性, 그리고 茶山의 段階에서의 人間觀의 變容을 媒개로 한 새로운 政治社會論의 展開는 傳統儒敎에서 民의 福利를 위하여 經濟政策의 次元에서 論議되어 온 民本主義의 틀을 풀어 헤치고 民을 政治의 主體로 化하는 것이었다.」(朴忠錫, 1981)라고 보는 積極的 評價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편에는 實學研究가 制度·技術·方法論에 偏向된 나머지 修己·正德·性命義理에 있어서 傳統의인 것으로부터 어떤 質的인 變化 없이 다시 말하면 人間의 基底意識 즉 哲學에 아무런 變化 없이는 새로운 經世觀이 나오기 어렵다는 前提下에 實學研究가 人間의 內面的 思惟의 論理·內面的 倫理의 解明이 必要하다는 慎重論이 있다(尹絲淳; 鄭呂烈, 1981).

우리의 이같은 歷史狀況과 對照的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日本의 경우를 여기서 잠시 본다면, 德川封建體制下에서 儒者出身 荻生徂徠以來의 위로부터의 功利的 殖産興業思想 뿐만 아니라 이에 呼應하는 아래로부터의 禁欲的 勤勞思想이 商人側에서는 石田梅岩 등, 그리고 農民側에서는 二宮尊德 등에 의한 生産者層의 近代思想(그들 自身の 著述에 의한)이 두텁게 展開되어 이것이 商品經濟의 浸透과 農民層分解를 媒介로 하는 封建經濟의 解體→重商主義國家形成이라는 明治國家體制整備過程에 雙曲線을 이루며 脈絡이 이어졌다는 歷史(長幸男, 1980)는 舊韓末의 우리의 經驗과 비교하여 單純한 時差만의 문제가 아닌 他山之石이 아닌가 한다.

3. 日帝時代의 韓國經濟學

1910年の 韓日合併에서 45年の 解放에 이르는 日本植民地時代의 韓國經濟學은 어떠한 狀況이였는가? 여러가지 限界가 있고, 또 確然한 連續性을 決定하기에는 問題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外見上이나마 經濟思想의 準備期라 할 수 있는 實學派時代가 先行되었고 舊韓末 開化期에는 日本의 亞流일망정 西歐經濟學의 片鱗이나마 導入하기 시작한 것을 위에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韓日合併에 의하여 韓國經濟學史의 斷絶을 確認하게 된다. 그것은 첫째, 民族自主的인 開化思想의 물결을 遮斷當했다는 點에서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端的인 證據가 合邦條約을 公布하자마자 韓國人이 著作한 各級學校 教科書를 沒收하기 시작한 사실에서 나타나는 것이다(東亞日報社, 1976). 이 事態로 因하여 舊韓末에 活潑히 出刊되던 經濟學關係 教科書類의 相當數가 그 書名만 알려진 稀貴해진 理由로 判定된다. 그 뿐 아니라 民族意識을 高취하는 各種 刊行物의 沒收와 發賣禁止가 있었기 때문에 合邦後 적어도 10餘年間은 事實上의 精神的 空白期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日帝 36年間을 通時的으로 볼 때는 <表 4>에 보는 바와 같이 54卷의 著書와 49件의 譯書·譯論文, 1,648편의 論文과 6편의 學位論文이 나와 있지만 그 大部分이 1920年代 이후에 發表된 것들이고 특히 1930年代가 韓人에 의한 經濟學書刊行의 絶頂期를 이루는 등 時代別 分布狀況에는 差異가 있었던 것이다.

日帝時代에 經濟學과 商學教育이 國內에 確立되기 시작한 時期도 1920年 前後부터였으며 普成專門學校와 延禧專門學校의 두 私立學校와 京城高商과 京城帝大의 두 官立學校에서 經濟學의 教育과 研究가 敝行的으로나마 進行되고 있었다. 물론 이 時代의 經濟學教育人口는 이들 國內專門大學에서만 배출된 것이 아니라 日本의 各種大學에 留學한 인구까지 가산된다. 위의 두 官立學校에는 韓國人教授를 두지 않았으므로 大部分의 經商系學者는 普專과 延專 兩校의 敎수로 在職하고 있었다. 洪性夏·白象圭·李寬求·金洗鎭·李常薰·朴克采·尹行重·李順鐸·白南雲·盧東奎·陸芝修·申泰煥敎수 등이 이에 속하며 國內外 研究機關에

<表 4> 分野別 經濟學文獻 構成(1910~1945)

種 類	分 野	年 代										合 計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著 書	書	17	7	4	3	1	—	—	20	2	—	54
譯 書/譯 論 文		24/13	0/1	—	1/0	3/3	—	0/1	0/1	0/2	—	28/21
論 文	文	325	323	8	95	7	—	65	512	223	90	1,648/379 ⁽¹⁾
學 位 論 文		0/2	—	—	—	—	—	—	0/2	0/1	0/1	0/6 ⁽¹⁾

出處: <表 2>와 同--.

註: (1) 國語論文數(A)와 外國語論文數(B)의 對比(A/B)인.

재직하던 韓人學者로는 京城帝大의 朴文圭, 東京帝大의 姜鉉澤, 九州帝大의 崔虎鎮, 日本 東洋經濟研究所의 高承濟교수를 들 수 있다(崔虎鎮, 1957).

國內에 唯一한 植民地大學인 京城帝大에는 獨立된 經濟學科는 設置하지 않았지만 開校即時(1924年) 法學會(後에는 法文學會 第一部)를 조직하여 法學과 더불어 經濟學이 研究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1928년부터는 四方博의 努力으로 「朝鮮經濟研究所」가 開設되는 등의 研究組織을 具備하여 四方外에 森谷克己·鈴木武雄·三宅鹿之·山田文雄 등 都合 9名の 經濟學教授陣을 確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의 研究成果는 法文學會 第一部 論集 第2冊으로 『朝鮮經濟의 研究』(同(第一) 1928, 同(第二) 1933, 同(第三) 1938) 등에 약 30편의 論文으로 發表된 바 있다(京城帝大創立五十週年記念事業會, 1975).

이들 日人經濟學者들의 關心은 그 論文構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韓國經濟에 관한 經濟史·財政·金融·農業·勞動 및 韓日經濟關係 등 應用分野에 集中되어 있고 理論經濟學分野는 한 件도 없었다. 當時의 日本學界에 알려져 있는 學者로는 『아세아의 生産樣式論』을 펴낸 森谷 정도였고, 四方博의 論文 「朝鮮에 있어서의 近代資本主義의 成立過程」(『朝鮮經濟의 研究』(第二, 1933)은 開港前後의 韓國經濟의 他力에 의한 資本主義化過程을 實證적으로 다루려고 한 最初의 論文이었으나 基本的으로 植民地史觀의 發露에 지나지 않았고 唯一한 韓人學者의 日語論文인 朴文圭의 「農村社會分化起點으로서의 土地調查事業에 관하여」(上同, 1933)는 日帝에 의한 韓國農業의 資本主義化過程의 半封建의 性格을 다룸으로써 反植民史觀이기는 하나 마르크스主義史觀에 立脚한 論文이다. 日人들이 갖는 特權的 地位를 利用하여 「朝鮮經濟研究所」에 수집된 龐大한 資料(所謂 四方文庫)는 오늘날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에 經濟文庫로 引繼되어 있으나 8.15에서 6.25에 이르는 混亂 통해 逸失된 部分이 많다

여기서 日帝時代에 活躍한 韓人 經濟專門家들이 發表한 論著들 중 注目할 만한 文獻을 例示하면 아래와 같다.

백일규, 『한국경제사』, 單行本(美國서 刊行), 1920.

李順澤, 「朝鮮人の 人口統計」, 論文(『開闢』 7, 8), 1926.

盧東奎, 「朝鮮農家經濟實相調査解剖」, 論文(『東方評論』 7), 1932.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單行本(改造社, 日語), 1933.

金沈鎭, 「李朝末期에 있어서의 朝鮮의 貨幣問題」, 論文(『普專學會論集』 1, 日語), 1934.

朴克采, 「리카도의 比較生産費說에 관하여」, 論文(『京都市大經濟論叢』 38 1, 日語), 1934.

李勳求, 『朝鮮農業論』, 單行本(漢城圖書), 1935.

印貞植, 『朝鮮의 農業機構分析』, 單行本(白揚社, 日語), 1935.

李清源, 『朝鮮社會史讀本』, 單行本(白揚社, 日語), 1935.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卷)』, 單行本(改造社, 日語), 1937.

姜鋈澤, 『朝鮮農業에 있어서의 生産시스템의 變化』, 論文(『農業經濟研究』15-3, 日語), 1939.

柳子厚, 『朝鮮貨幣考』, 單行本(學藝社), 1940.

文定昌, 『朝鮮의 市場』, 單行本(日本評論社, 日語), 1941.

崔虎鎮, 『近代朝鮮經濟史』, 單行本(慶應書店, 日語), 1942.

尹行重, 『現代經濟學的 諸問題』, 單行本(博文書館), 1943.

高承濟譯·칼레키(Kalecki)著, 『케인즈雇傭理論入門』, 單行本(伊藤書店, 日語), 1943.

日帝時代의 韓國經濟學者들의 業績에 關해서 몇가지의 特色을 摘出하면, 첫째 關心領域이 農業經濟와 經濟史分野에 集中되어 있는 點이며, 둘째는 특히 後者に 있어서 當時 專門大學의 學者일수록 마르크스主義史觀에 傾倒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學界의 支配의 類型이 되었던 點이다. 셋째는 學界가 아닌 在野 또는 言論界 출신들의 에코노미스트들에 의해 當時의 韓國經濟의 生々한 實態가 記述된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사실이다. 가령 李覺鍾·裴成龍·林炳哲·梁甲錫·池中世같은 이들의 論文이 學界의 教條主義의 畦에 사로잡힌 論著들(그것도 經濟史分野의)보다 當時의 經濟現實을 理解함에 보다 많은 資料를 提供해 주고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高承濟, 1977).

네째의 特徵은 理論經濟學에 있어서는 마르크스經濟理論에 關한 短片的인 論文 以外에는 단 하나의 研究도 發見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위의 例示에 보이는 尹行重의 『現代經濟學的 諸問題』(論文集)는 日帝末에 韓國語로 쓰여졌고 또 그 안에 케인즈를 다루고 있다는 點에서 異彩를 지만 케인즈의 『一般理論』을 나치 統制經濟理論家인 슈판(O. Spann)이나 고틀(Gottle)類와 같은 系類로 해석하는 誤謬를 犯하고 있다.

그러면 이 時代의 韓國經濟學이 近代經濟學的인 理論研究는 完全에 加減도 缺如한 極少數의 例外는 있지만 唯獨 마르크스主義的 方法의 經濟史研究에 傾倒하게 된 理由는 무엇인가? 이에 關해서는 大體로 두가지 理由가 지적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당시 이데올로기로서의 마르크스主義가 民族主義思想을 牽強附會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연유되었고, 이와 同時에 둘째로 이보다 더 큰 原因은 當時의 日本經濟學界의 動向에서 온 影響이었다. 즉 위에서 例示한 大部分의 韓人經濟學者들이 日本 아니면 國內大學에서 日人教授의 指導를 받았으며 大體로 1920年前後부터가 이들의 被教育期間이었다고 보면, 이 當時의 日本經濟學界의 狀況이 이들 韓國人經濟學徒에게 미친 影響은 明若觀火한 것이다.

앞서 본 바처럼 19世紀 中葉의 導入初期에 英美經濟學書의 번역에서 출발한 日本經濟學은

19世紀末부터 後期歷史學派의 영향을 받으면서 多數의 學者가 獨逸留學을 하게 되고 한 때는 日本版「社會政策學會」까지 組織할 만큼 歷史主義의 영향이 컸으나, 그 후 20世紀初부터는 마르크스經濟學이 導入되기 시작하여 1920年 경에는 이것이 日本經濟學界에 定着化되는 過程을 밟는다. 河上肇·櫛田民藏 등에 의해 本格화된 마르크스經濟學의 思想的·理論的 研究가 活潑해졌는데, 이를 加速화시킨 要因의 하나로는 『金融資本論』의 著者 힐퍼딩(Hilferding)의 同學으로서 亦是 著名한 마르크스主義經濟學者인 레데러(Emil Lederer)가 1923년부터 4個年間 東京大學의 客員教授로 在職한 사실도 看過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을 뿐더러 1920~30年代의 日本資本主義의 現實이 後進國型 工業化過程에 따르게 마련인 二重構造的 矛盾을 안고 있었던 점도 中小企業이나 農村構造的 解明에 近代經濟學보다는 마르크스經濟學에 경도하게 만든 原因이 되었던 것이나(玉野井芳郎, 1971).

이러하여 價値論爭, 地代論爭, 階級 및 日本資本主義의 構造論爭(講座派 對 勞農派) 등 마르크스主義를 중심으로 한 理論과 實踐의 混合的 風土가 經濟學界를 支配하고 있었으며, 이는 當時의 植民地出身 韓國人留學生들의 關心을 끌기에 充分한 환경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 무렵의 歐美經濟學界는 이미 獨逸歷史學派도 마르크스經濟學도 아닌 1870年代의 限界革命以來 經濟理論을 主導하기 시작한 新古典派經濟學이 定着된 지 오래일 뿐더러 이의 完成期라 할 수 있는 1930年代 中葉에는 케인즈革命을 거치는 등 飛躍的인 變化를 경험하고 있는 判局이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다.

물론 日本經濟學界에도 少數派일망정 20世紀初부터 一部の 유럽留學者들에 의해 이 새로운 正統經濟學의 潮流가 대부분 紹介되어 왔고 또 이 方面의 主要原典들(쿠르노, 제본스, 왈라스, 마샬, 케인즈 등)도 번역되어 옴으로써 戰後에 있어서의 日本經濟學의 開花에 밑거름을 적실히 준비해 왔던 것인데(高橋誠一郎, 1953), 이러한 새 傾向을 消化하고 이들의 流派에 관한 研究實績을 남긴 韓國人學者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니, 日帝時代의 이와 같은 狀況이 解放直後 6.25에 이르기까지의 韓國經濟學界의 性格을 定型화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한가지 지적할 것은 日帝時代 日本大學들에서는 韓國人에게 博士學位를 주지 않았는데도 <表 4>에 나타난 6편의 學位論文은 모두 歐美大學出身의 論文들이다. 參考로 이를 소개하면 李勳求 “A History of Land Systems and Politics in Korea,” The University of Wisconsin, 1929; 金容澤의 “Evaluation of Factors in International Trade of Japan, 1920~1935,” Northwestern University, 1938; 한상옥의 “Die Landwirtschaft von Korea,” Zürich Universität, 1927; 金度演의 “Rural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The American University, 1931; 張德秀의 “British Methods of Industrial Peace: A Study of Democracy

in Relation to Labor Disputes," Columbia University, 1937; 趙炳玉의 「生産과 消費의 調節」, Columbia University, 1924 등이다(李基俊, 1980). 金度演과 趙炳玉이 延專, 張德秀가 普專, 李勳求가 崇實專門의 教授經驗이 있지만 大體로 이들이 政界로 轉身했기 때문에 學界에의 影響은 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IV. 韓國經濟學의 成長과 構造

1. 知識產業으로서의 經濟學

8.15解放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韓國經濟學의 實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知識產業의 產出高를 確認하고 그 構造를 밝히는 定量的 分析과 더불어 可能的 範圍에서 質的 問題를 다루는 定性分析까지 할 수 있다면 僥倖스러운 일이겠으나, 그러나 특히 後者의 韓國經濟學者들의 業績을 質的 側面에서 評價한다고 하는 作業은 다음에 列擧하는 몇가지 理由에서 至難한 作業임을 自認하지 않을 수 없다.

解放後 韓國經濟學의 量的 成長은 發表論文數·著書發行數·經濟專門家の 供給數 등 그 어느 基準으로 보나 分명한 事實로 確認되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韓國經濟學의 發展을 推定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① 아직은 우리가 全般的으로 先進國 經濟理論을 輸入·咀嚼하는 段階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點과, ② 따라서 世界經濟學界에 대한 韓國人의 寄與度는 經濟理論의 限界의 知識增分に 대한 功獻이란 側面에서 볼때 尙今 두드러진 評價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點과, ③ 이 論文 앞 部分에서 지적한 것처럼 經濟科學의 知識增大過程은 學術論文의 動向에서 특히 當該論文의 經濟學者들에 대한 影響力을 測定하는 引用頻度(citation frequency)로 가늠할 수 있는데 이 같은 指標가 韓國人 論文에 대해 國際水準에서 거의 零에 가까울 뿐 아니라, ④ 韓國人 經濟學者들의 論文 相互間에도 韓國人 論文에 대해 批判的인 것은 물론 贊成하는 경우조차도 引用을 거의 찾지 어렵다는 點 등은 바로 國內에 嚴密한 의미에서의 經濟「學界」가 아직 形成되지 않았다는 證左가 된다는 것을 率直히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情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過去 60~70年代에 있어서의 韓國經濟現實의 量的 成長이 어찌서 삶의 質的 向上을 수반하는 眞正한 의미의 發展을 확립하지 못했는가의 原因을 캐 볼 必要가 있듯이 (그 代表的인 例로 邊衡尹, 『韓國經濟의 診斷과 反省』, 1980; 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1981) 8.15以後의 韓國經濟學의 量的 成長과 그에 따르는 諸問題들이 亦是 外國의 事例과 比較하면서 省察해 본다는 것은 결코 無意味하지

는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知識産業으로서의 經濟學의 成長과 構造를 파악하기 위한 基本資料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利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物的 生産物로서 各大學·研究所·學會發行的 學術論文數, 學位論文數, 各種雜誌에 發表되는 專門的 時事論文數, 經濟學關係 單行本數(翻譯 포함)등을 참고할 수 있고 各級調查機關의 調查資料 및 報告書數는 中間生産物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人的 投入要素로는 各大學의 經濟學教授數, 專門研究機關의 研究職從事者數, 學位取得者數 등의 變化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이와 같은 知識産業論的 觀察에는 知識生産을 投資·消費·中間財 중 어느 쪽으로 해석하느냐에서부터 그 對象範圍는 어떻게 잡으며 그 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등의 未解決의 問題가 山積되어 있기 때문에 至極히 恣意的인 判定과 定義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Machlup, 1962).

다만 우리가 經濟學의 知識을 廣義로 해석할 때 위와 같은 人的·物的인 投入 및 生産物에 관한 情報를 충분히 얻을 수 있고 또 適合한 假定들을 세운다면 經濟學 知識産業의 成長速度와 그 構造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物的 生産物中 學術·研究論文이나 著·譯書는 물론이지만 月刊雜誌 등에 발표되는 時事的 論文 중에도 當該時期의 政策問題 등에 관한 매우 價値있는 글이 실리는 경우가 許多하다는 點에서 經濟知識生産의 主要源泉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各級調查機關이나 政府有關機關의 各種統計 및 그 分析資料와 經濟實相에 관한 報告가 經濟知識産業의 生産을 위한 不可缺의 中間生産物임은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對象範圍를 포함하는 經濟學의 知識産業의 產出高를 規定하는 것은 經濟學的 知識所有人力의 數와 그 生産性일 것이다. 經濟學의 人力規模는 물론 經濟學 및 經濟知識의 生産에 종사하는 專門家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大學學部 수준의 經濟學科 卒業生數는 오히려 經濟知識産業의 生産物로 간주하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知識産業의 觀察에 있어서 다른 財貨와 用役生産을 위해 企業間에 去來되는 中間製品(intermediate product)을 어떻게 定義하는가에는 그 基準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 매우 複雜한 問題가 介在되기 때문에 大學이라는 知識企業으로부터 調查研究機關 등의 知識企業에 공급되는 經濟學科出身(數)을 中間投入으로 간주할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으나, 스티글러의 경우처럼 經濟學者의 出版物은 共著가 아닌 限 個別生産物인 데 비하여 學生은 제아무리 優秀하다 하더라도 特定教授의 個別生産이 아닌 合同生産物인 同時에 同一教授의 生産(教育)活動으로 異質의 多數學生이 輩出된다는 의미에서는 結合生産物(joint product)로도 해석된다는 點에서 投入으로서보다는 產出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G. Stigler, 1965).

우리가 知識產業으로서의 經濟學的 知識生産을 위한 勞動投入要素를 以上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같은 人的 投入의 生産性에 영향을 주는 物的 投入은 이들에 대한 金錢的 待遇條件·研究施設이 되겠으나,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要因으로는 經濟學者를 制度的으로 包容하고 있는 大學 및 研究機關의 教育·研究組織과 이같은 組織內에 있어서 經濟學者들의 心理的 내지는 知識社會學的 風土, 다시 말하면 존슨이 말하는 經濟學者들이 占하는 空間的 場所 및 그 넓이를 뜻하는 「自然地理」와 經濟學者들 相互間의 人間關係나 學問 및 學問外活動을 規制하는 制度裝置를 포함하는 「社會地理」가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經濟學知識產業發展의 速度와 質과 方向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側面도 결코 過小評價할 수 없을 것이다(Johnson, 1976). 그러나 이같은 要因들의 定量的 算出은 心理的 報償(psychic income)을 考慮해야 되는 등의 理由로 實質的으로는 不可能에 가까운 일로 보인다.

한편 우리가 이같은 要因을 無視해 버린다면 經濟學的 知識產出高를 규제하는 人的·物的 要素들의 全般的 成長은 구태여 詳細한 統計를 들추지 않는다 해도 充分히 推定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經濟學知識을 時間의 函數로 보아 年年의 量的 增加를 플로우(flow)概念으로 보는 側面이며 이같은 經濟學知識의 蓄積量을 스톡(stock)으로 볼 때 提起되는 문제는, 이 論文 앞 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人的 投入에 있어서나 物的 要素에 있어서나 그 投入要素들의 減價(depreciation)와 陳腐化(obsolescence)가 進行되기 때문에 經濟學知識의 純增加分の 算定에는 이같은 減價部分의 除去가 不可避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같은 巨視的 觀察을 떠나서 個別經濟學者 또는 個別大學이나 個個研究所 또는 各專門誌의 生産性을 평가하는 微視的 分析을 위해서는 現在 通用되고 있는 引用頻度(citation frequency)같은 數值的 測定으로 相當範圍의 觀察이 可能하고 또 利用되고 있다는 것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렇게 볼 때 위의 諸論點에 의하면 經濟學的 狀態는 知識產業의 一種으로서 그 自體가 經濟學的(巨視·微視)으로 透視possible한 側面이 적지 않다는 것을 窺知할 수 있다. 그러나 國民經濟의 現實을 GNP推計가 相當 程度 밝혀 주고 있으면서도 經濟의 實相에 관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없듯이 한차 이같은 計量的 方法에 의한 經濟學的 歷史나 狀況把握에는 아직도 未拾한 點이 許多하다는 것과, 우리나라 經濟學은 國際化水準에 未達한 段階에서 아직도 歐美各國으로부터 既存의 知識을 導入하는 處地에 있다는 判斷의 두가지 理由 때문에 위에 說明한 計量的 方法의 嚴密한 計測은 將來 研究를 위한 眺望(vista)을 提示하는 데 그치고 이

下에서는 이같은 方法을 전당하면서 韓國經濟學의 成長構造에 관한 몇가지 側面의 觀察을 試圖하기로 하였다.

2. 解放後 混亂期의 韓國經濟學

1945年 8.15解放 후 1950年代까지의 韓國經濟學史는 混亂과 再建의 段階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段階의 前期인 6.25動亂 以前의 韓國經濟學은 解放으로 인한 政治的 狀況만 달라졌지 日本殖民地時代의 韓國人經濟學界가 그대로 移行된 狀態였고, 이것이 더구나 學問으로서의 經濟學과 政治이데올로기나 政治行動을 完全히 混同하는 水準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惹起된 混亂은 오늘의 想像을 絶하는 바가 있었다.

〈表 5〉 分野別 經濟學文獻 構成(1945~1950)

種 類	分 野	分 類 番 號										合 計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著	書	32	13	2	4	—	—	—	12	1	—	64
譯	書	53	3	—	—	—	—	—	1	1	—	58
論	文	86	108	3	24	23	—	28	116	22	9	419

資料:〈表 2〉와 同一.

그러나, 이같은 混亂에도 不拘하고 解放의 기쁨과 學問에 대한 情熱로 野心的인 生産活動을 試圖한 것은 사실이다. 이 時期(1945~50)에 64卷의 著書와 58卷의 譯書, 419編의 論文이 出刊되었다. 64卷의 著書 중 折半인 32卷이, 그리고 譯書에서는 91%가 一般經濟學書類(分類番號 000)로서, 이것을 中分類해 보면 그 중에서도 著書는 入門經濟學類(分類番號 010)와 經濟史(040)에 集中(25卷)되어 있는 데 비하여, 譯書는 經濟思想類(030)와 經濟體制論(050)이 壓到的(45卷)이라는 사실을 볼 때 解放混亂期의 韓國經濟學의 構造가 如實히 드러나 있다 하겠다. 그 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大學의 專門學術誌가 定立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반드시 專門水準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各種 性格의 雜誌類에 실린 經濟學者들의 論文 419편 중에서 108편이 經濟發展問題(分類番號 100)에 그리고 116편이 農業經濟學에 집중되어 있음으로써, 이 時期의 韓國經濟學은 著書는 入門의 수준의 經濟原論에, 譯書는 특히 社會主義體制와 思想類에, 그리고 論文은 韓國經濟의 各種發展策과 특히 日帝時代부터 傳統이 있는 韓國農業問題에 관한 意見을 活潑히 提唱하고 있었다고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當時 經濟學界를 支配하고 있었던 것은 國立 서울大學校로 統合되기 以前의 京城大學(1945.10~1946.6)에 白南雲·朴克采·姜廷澤·黃道淵·尹行重·崔虎鎮* 교수와 商科大學에서는 金世鍊·金漢周·李基洙·全錫淡·崔英澈·金昌周·許東·李順基 등, 그리고 高大·延大의 金洸鎭·尹行重·崔文煥*·李順鐸·申泰煥*·高承濟*·趙巖濬*·陸芝修* 교수

등이 講義를 담당하기 시작했으나 이들은 몇 분(*)을 除外한 壓到의 多數가 社會主義經濟學에 傾倒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같은 風向의 政治運動에도 直接·間接적으로 干與하면서 (社會科學者同盟·民族文化研究所·社會科學研究所를 中心으로) 1945年 8月 17日에 發足한 朝鮮學術院(委員長 白南雲)을 위시하여 學界一般을 支配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經濟學의 科學的 研究나 正統的 經濟理論이 研究 教育될 風土가 釀成되지는 못했다도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朝鮮學術院, 1946; 서울評論, 1975).

解放의 기쁨과 興奮 속에서 建國을 눈앞에 둔 當時의 韓國의 知性들에게 經濟思想과 經濟體制의 選擇에 있어서 左傾化의 길을 대하게 한 가장 큰 힘은 케인즈의 말대로 그들 個個人的 利害關係보다는 이들이 20代 中반에 洗禮받은 日本經濟學者들의 思想이 善惡間에 미친 致命的인 영향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영향받은 1930年代 前後의 日本 마르크스主義經濟學은 이른바 「講座派」가 主導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 派는 周知하듯이 政治的 行動과 密接한 聯關下에 經濟學을 연구하는 나머지 特定이데올로기의 實踐的 要請이나 革命政黨이 設定한 戰略方針에 科學研究를 從屬시키는 誤謬를 犯하는 挫折을 겪게 됨으로써 戰後 日本 마르크스經濟學의 分裂을 自招한 그룹이었다(早坂忠·正村公宏, 1974).

마르크스 『資本論』 第一卷의 번역(崔英徹·全錫淡·許東共譯, 1947~8, 1~5分冊)과 리카도의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2)을 번역한 『經濟學原理』(金世鍊·李英培共譯, 1947~48, 上·下卷), 마샬의 *Elements of Economics of Industry* (1892)를 번역한 『經濟學概論』(孫膺祿譯, 1950) 以外에는 譯書의 大部分이 蘇聯系의 經濟學教科書類가 壓到의이었다. 解放最初의 理論的 著書로 눈에 띄는 尹行重의 『理論經濟學』(1947) 第一卷이나 趙岐鎬의 『인플레이션의 基礎理論』(1948)도 徹頭徹尾 마르크스理論의 教條主義的 해석으로 一貫되어 있다.

이 時期에 多數 쓰여져 나온 韓國經濟史에 관한 著書들도 물론 마르크스主義 唯物史觀에 입각한 것들임은 물론이다(朝鮮銀行 調查部, 1948).

물론 이 밖에도 우리나라 最初의 『一般經濟史』(1946)를 崔虎鎮교수가 譯한 의에, 權泰燮의 『朝鮮經濟의 基本構造』(1947), 金永浩의 『協同組合論』(1948), 印貞植의 『朝鮮農業經濟論』(1949)같은 應用經濟學分野의 論著들이 나와 있으며, 韓國銀行 調查部에서 1948년과 1949년 두 해에 걸쳐 發行한 『經濟年鑑』은 解放에서 6.25前年에 이르기까지의 經濟實態를 파악하는 데 不可缺의 情報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日帝時代(1930年代)의 延長線上에서 볼 수 있는 解放直後의 經濟學의 마르크스主義的 性格에 관하여 밝혀 둘 몇가지 문제가 있다. 앞서도 指摘했듯이 科學과 政治

를 區分하지 못하고 있었던 缺陷은 차치하고 또, 當時의 政治狀況으로 因한 不可抗力을 인정하면서도 學問의 水準에서 볼 때 우선 日本 講座派 마르크스主義를 超越한 「마르크스主義經濟學」은 「마르크스 자신의 經濟學」을 實踐的이 아닌 理論的 次元에서 理解하는 데 끝내 失敗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經濟學에 대한 日本學者들의 解說이나 번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論』을 原典으로 讀破하고 理解하고 批判할 수 있는 境地에 이른 學者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47~48년에 『資本論』 第一卷이 번역되었지만, 日本學者들이 大舉 獨逸留學을 마친 然後의 長期間에 축적된 知識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해석이 가능했고 또 계속 改譯이 나왔던 사실에 비추어, 그리고 日帝時代나 解放直後에 있어 韓國人 經濟學者들의 獨逸語能力으로나 時間上으로 미루어 볼 때 日語版의 重譯이 되었을 可能性이 대단히 높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經濟學에 관한 理論的 消化의 水準이 이런 程度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韓國經濟史나 經濟現實을 分析하는 能力도 日本式 亞流的 教條主義的 訓誥學이나 道그마에 始終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經濟學이 科學의 生命인 既成學說의 批判的 消化라는 屬性을 버리고 한낱 學說에다 政治·理念·思想 등 疇잡물을 혼동시킨 一種의 宗教狀態로 變質되어 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解放前後期 日本經濟學에 관한 論評에서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가 講座派 마르크스主義者들이 占領하고 있는 主要 國立大學에서 마르크스經濟學이라면 英겔스·레닌·스탈린路線만을 固守하고 『資本論』의 解說書를 暗記하되 그 分析的 內容은 看過한 채, 大學의 經濟「原論」講座를 獨占하여 理論과 實踐의 統一을 외치면서도 日本經濟가 當面한 現實問題에 대해서는 아무런 有效한 分析能力도 具備하지 못했다고 한 酷評은 이 時期의 우리 實情을 觀照함에 示唆하는 바가 많은 것 같다(Bronfenbrenner, 1956). 그래도 日本에서는 마르크스主義 안에서조차 講座派以外에 新講座派와 「勞農派」, 마르크스經濟學에서 이데올로기를 排除하려는 宇野理論 등의 多様な 展開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一角에서는 正統經濟學的 研究의 潮流가 戰前부터 連綿히 흘러 왔고, 歷史學派 經濟學이나 古典派 經濟學에 沒入된 個別研究者들의 知識蓄積이 두텁게 쌓여져 왔다는 點에서 너무나 單線的인 이 時期의 韓國經濟學의 狀況과는 큰 差異가 있었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3. 韓國經濟學의 轉機

그러나 6.25動亂은 韓國經濟學界의 이같은 構造에 一大 變革을 가져오게 하였다. 물론 1948년의 大韓民國政府樹立 前後부터 經濟學界는 多少의 變動이 있었지만 6.25動亂은 다른 어떠한 學問에도 比肩될 수 없는 變化를 가져온 것이다. 즉 多數 經濟學者들의 拉北 또

는 越北事態로 6.25 이전에 活躍하던 大部分의 左傾教授가 行方不明이 되었기 때문에 各大學의 經濟學教授陣은 새로이 構成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韓國經濟學은 有史(開化期)以來 실질적으로 세번재의 斷絶을 경험하게 된다. 1910년의 韓日合併과 8.15解放과 6.25動亂이라는 政治的 斷絶이 他律에 의해 強要되는 狀況에서 經濟學의 知識蓄積이 持續적으로 成長될 可能性이 희박했던 것은 當然하다. 學說이나 學派의 交替가 아닌 社會激變의 連續 속에서 韓國經濟學은 1950年代에 와서 비로소 現代經濟學의 滔滔히 흐르는 世界的 潮流의 물결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舊韓末과 日帝時代와 6.25. 까지 實로 半世紀餘만에 日本流의 亞種經濟學을 脫皮할 수 있는 機會를 맞이한 셈이다.

그리하여 서울大學校에서는 申泰煥·高承濟·崔文煥·李相球·劉鎮舜·金俊輔교수 등이 중심이 되고, 高大에서는 趙璣濬·趙東弼·成昌煥교수 등이, 延大에서는 金相謙·金尺壽교수 등이, 中央大學에서는 崔虎鎮교수 등이 주동이 되어 經濟學의 再建에 앞장서게 되는데 이들은 6.25 以前에 支配의이던 마르크스主義經濟學 一邊倒의 風潮나, 學問과 政治運動을 混同視하는 態度에 휩쓸리지 않고 科學으로서의 經濟學을 着實히 연구하려는 少數派 立場의 堅持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中心이 되어 再開된 經濟學教育和 研究는 6.25 以前의 殘滓를 一掃한 整地 위에 새로운 經濟學의 歷史를 여는 契機가 된 것이다. 經濟學教育의 教科課程과 研究體制의 漸進的 改善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다. 가령 이들의 初期活動中 여기서 特記할 사실은 1952년에 臨時首都 釜山에서 申泰煥·高承濟·崔虎鎮 세 教授가 發起하여 韓國經濟學會(初代會長 申泰煥)를 發足한 일이다. 戰亂이 계속 중인 當時의 狀況에서 그들의 學究熱은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現狀은 學的 體系에 있어서나 그 水準에 있어서 甚히 不分明」하니, 「斯學을 專攻하고 있는 同學들이 橫적으로 相互 提攜하여 하나의 機關을 단틀고 研究의 發表·批判·報告…를 通하여 斯學의 一層 體系의 이고도 높은 水準의 發展을 企圖」하며 「나아가서는 海外經濟學界와의 研究의 交換…을 꾀하고 國際적으로 斯學發展에 貢獻」하고자 한다는 意慾을 보였고(韓國經濟學會 創立趣旨文, 1952), 그 다음해 8월에 우리나라 最初의 經濟學術誌 『經濟學研究』 創刊號를 내놓았다. 그런데 이 創刊號에 실린 內容을 보면 申泰煥의 「貨幣의 均衡의 概念」, 崔文煥의 「퍼히터, 封鎖의 商業國家論」, 高承濟의 「韓國鑛業史 序說」, 劉鎮舜의 「韓國인플레이션及 反인플레이션의 分析」, 趙璣濬의 「現代經濟史學의 課題」와 安霖의 調査資料, 李相球교수 및 金斗熙교수의 書評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6.25 以前에 있어서의 韓國經濟學界의 動向을 完全히 불식하고 均衡理論과 實證經濟史, 인플레이션分析을 통한 韓國經濟現實의 體系의 把握, 스테터와 制度學派 등 非마르크스主義 經濟思想家들에 대한 理解 등으로써 經

〈表 6〉 分野別 經濟學文獻 構成(1951~1960)

種 類	分 野	分 野										合 計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著	書	55	35	8	26	7	—	3	15	5	2	156
譯	書	97	20	3	10	4	—	—	4	6	—	144
論	文	128	32	5	12	9	—	7	37	19	4	230

資料:〈表 2〉와 同一.

經濟學研究의 方向轉換에 있어 過少評價할 수 없는 模型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하여 整備되어 갈 50年代의 韓國經濟學界의 研究成果를 綜合해 보기로 하자. 〈表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1951~60年의 10年間에 韓國經濟學者들은 著書 156卷, 譯書 144卷, 論文 230篇을 생산해 냈는데 그 內譯을 보면 著書의 35%가 入門의 原論을 비롯한 教科書이고 22%가 成長·發展分野, 16%가 通貨 및 財政分野에 집중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새로운 體系의 經濟學教育의 必要性和 職涯로부터의 再起에서 復興의 課題를 안고 있던 當時의 經濟現實이 잘 反映되어 있으며, 특히 譯書의 數는 여기서 比較되는 60年代나 70年代보다 絶對적으로나 相對적으로 많은 量일 뿐 아니라 그 67%가 一般經濟學類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入門教科書(010)보다 理論書類(020)와 經濟思想史類(030)가 많았다는 사실은 케인즈經濟學을 비롯한 新風의 知識과 마르크스主義에 代身하는 經濟思想내지 方法論에 관한 需要가 컸던 經濟學界의 狀況을 반영하고 있었다. 論文 역시 56%가 一般經濟學(000)에 集中되어 있지만 그 중 歴史的 多數(77篇)가 經濟史研究인 것은 日帝時代 以來의 研究實績이 쌓여져 온 배경도 있겠지만 相對적으로 보면 理論經濟學의 導入消化에 汲汲했던 當時로서 理論分野의 研究論文이 나올 餘裕가 적었던 때문으로도 해석된다(그래도 15篇의 理論的 論文이 發見되어 日帝時代나 6.25까지 全無였던 狀況보다는 進一步한 것이지만). 다음에 두드러진 것은 論文中 16%의 農業分野와 14%의 成長·發展問題이지만 우리가 50年代의 韓國經濟構造로 보나 또 傳統的 關心으로 보아 識者들의 關心이 여기에 쏠린 것은 當然하다 하겠으나 할까지 注目を 끄는 것은, 成長·發展分野의 論文 중 주로 經濟實態를 記述하는 分野(中分類記號 120)와 인플레이션 등 經濟變動을 다룬 分野(中分類記號 130)에 論文이 집중되어 있고 成長模型의 理論이나 計劃과 政策을 다루는 中分類記號 110分野의 論文은 겨우 4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50年代까지만 해도 美國의 援助經濟下에 있었던 우리로서 經濟現實의 困境을 記述은 해도 自主的인 發展策이나 計劃案 등을 提示할 能力과 狀況이 아니었고, 韓國經濟의 運營은 블룸필드(Arthur Bloomfield)라든가 네이산(Nathan)使節團 같은 美國經濟專門家들의 助言이 有力하게 作用했지 實際로 韓國經濟學의 知識이 作用한 痕跡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狀況은 물론 民族自主權이 없던 殖民地時代와 解

放後 6.25 때까지의 美軍政下에도 이 分野의 論文이 한 편도 없었다는 點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前記 <表 5>에 보이는 바처럼 8.15에서 6.25까지의 時評的 經濟論文 419편에 있어서도 108편의 成長·發展分野와 116편의 農業分野論文이 歷到的 比率를 차지하면서도 그리고 이 當時 베·오신스키의 『計劃經濟論』(World Social Economic Planning, Vol. 2, 1932—金世鍊譯, 1949)과 『맑스·레닌主義經濟學教程』의 「生産論」과 「貨幣論」(朝鮮文學社刊), 『政治經濟學教程』(李康國譯, 大成出版社刊)같은 著書가 판을 치고, 『計劃經濟와 蘇聯』(俞鎭元, 民主主義 20號), 『소聯의 第四次五個年計劃』(邊鶴鎮, 民主主義 3號)이 나오는 判局에 있어서조차도 韓國經濟의 現實에 관해서는 客觀的 事實確認과 論理的一貫性에 立脚한 計劃案은 고사하고 變化的 綜合的인 政策提意조차 稀貴했던 理由들을 우리는 自省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當時와 그 후의 50年代의 時評中에는 新生韓國의 經濟建設策을 論한 主張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理論보다 情熱을 앞세운 單편적인 主張이 아니면 政治的 프로피간다였지 經濟學的 檢證을 거친 合理的인 處方箋은 거의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韓國人의 經濟學이 韓國經濟의 運營 및 實相에서 遊離된 채 漂流해온 歷史는 舊韓末은 차치하고 日帝의 收奪經濟下는 물론이요 美軍政의 救護經濟下에서 그리고 自由黨時代의 援助經濟下에 있어서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不可避했다고 自慰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1950年代까지 적어도 印度 以下의 經濟水準에 머물러 있던 絶對貧困으로, 火急한 문제들에 대한 絶叫과 救援을 呼訴하는 內容이 아니면, 半封建的·植民地的 殘滓의 掃蕩을 위한 「實踐과 理論」의 統一戰線을 전개하는 일에 當時의 經濟學者들이 注力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理解는 간다.

모든 歷史가 同一하게 反覆되지 않듯이 모든 國家가 同一한 經驗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남의 歷史的 經驗을 他山之石으로 삼을 수는 있다는 見地에서 西獨에 있어서의 二次大戰 直後의 經濟學의 狀況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하자.

西獨에 있어서도 1945~48年間은 敗戰으로 國土分斷·약 2千萬의 避難民·産業의 完全破壞로 인한 生必品 絶對不足...에 의한 暗黑期를 가졌던 것이고 1948~51年 사이에 비로소 復舊期를 맞이하는데 이른바 라인江의 奇蹟을 낳는 기틀은 이미 1948年의 通貨改革 때에 잡혀졌음은 周知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通貨改革 후에 如前히 계속된 供給不足 때문에 物價上昇(인플레이션)의 危險信號가 나타났을 때 占領軍當局(英·美)의 顧問團과 西獨金融界 및 學界 사이에 完全한 意見對立이 發生한 것이다. 즉 케인즈派의 思考를 하던 軍政當局은 大量失業을 救濟하고 産業施設의 擴大를 위해서 인플레이션政策을 통한 需要誘發方法을 貫徹하려는 데 대해서 獨逸의 金融當局과 業界 및 學界는 失業이나 不完全雇傭을 甘受하던

라도 物價安定下의 均衡을 擇함에 文字 그대로 舉國一致의 意見統一로 軍政의 케인즈政策에 反對한 것이 라인江奇蹟의 礎石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E. Gutenberg, 1962).

히틀러執權後 二次大戰終戰時까지 國際(英·美)經濟學界로부터 사실상 杜絶狀態에 있었던 獨逸經濟學의 戰後 最初의 課題는 역시 케인즈經濟學을 導入 消化하는 作業이었으며 有名한 쉬나이더(E. Schneider)의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theorie*(Teil I~III, 1947~1952)가 初級에서 中級水準에 이르는 個性있고 定評있는 教科書로서 獨逸에 케인즈體系를 移植 시킴에 決定的 役割을 해 온 것은 잘 알려진 바이지만, 그리고 今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理論經濟學에 관한 限 英美系와 매한가지의 新古典派理論이 多數派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 지만, 戰後 1950年 前後까지의 獨逸經濟學史는 마이어(Hans Mayer)같은 오스트리아學派的 立場에서의 케인즈批判家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例: Röpke, Adolf Weber도 비슷한 立場). 뿐만 아니라 獨逸에는 固有의 傳統的 經濟思想의 흐름과 精神(Geist)이 戰後에도 뿌리깊게 되살아나고 그것이 英美系의 新古典派 一色이 아닌 亦是 獨逸의인 特徵을 維持하게 하는 淵源이 되었다고 본다. 그 例를 몇가지 든다면, 첫째 歷史學派의 影響인데 그것은 마르크스, 막스 베버, 쾰바르트, 오펜하이머, 슈페터로 이어져 오듯이 經濟學者들이 純粹經濟學에만 滿足하지 않고 恒時 社會學的·心理學的 要素를 內省的으로 思考하는 傳統이다. 물론 固有의 의미에서의 歷史學派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學派의 精神은 독일에 살아남아 있어서 戰後에 있어서도 살린(Edgar Salin), 프라이슬러(Preisler), 도브레츠베르거(Dobretsberger) 등의 業績을 남았던 것이다. 둘째는 方法論의 문제에 관한 關心度가 强하다는 點이다. 英美系 經濟學이 實用主義의 傾向이 强한 것과 對照의인데 이것은 쉬물러 對 멩거의 方法論爭(1880)以來 經濟學이 數量科學이나 理解하는 學問(verstehende Wissenschaft)이나의 문제라든가, 經濟學에서의 數學使用의 限界問題, 經濟理論과 哲學思想의 關係같은 方法論에 관한 健全한 關心을 持續시키게 되었고, 셋째는 막스 베버의 價値自由(Wertfreiheit)以來의 價値判斷의 문제가 如前히 經濟學者들의 관심 對象이 되어 있어 經濟理論 뒤에 숨겨져 있는 價値判斷이나 政策의 目的論 등과 關聯된 문제들이 持續되어 왔다. 넷째는 戰後에 國民經濟學(Volkswirtschaftslehre)과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이 線型計劃·投入產出分析 등 數理分析技法의 共有化로 接近해 가는 傾向을 보이게 된 點을 들 수 있다(Gutenberg, 1955). 다섯째는 오이켄(Walter Eucken)이 主導한 「社會的 市場經濟理論」을 내용으로 하는 프라이부르크(Freiburg)學派의 新自由主義思想의 탄생이다. 오늘날에 와서 新保守主義思想과 相通하기 때문에 體制擁護論의 印象이 길고 經濟理論上 새로운 것을 創始한 것은 아니지만, 1945年 以前의 파시즘의 經濟體制에 抗拒한 歷史가 있고 獨占과 國家干涉에 反

對하면서 自由市場·競爭·小企業을 維持하되 自由放任의 弊害를 規制하고자 하는 이 새 經濟秩序(Wirtschaftsordnung)思想은 戰後 獨逸經濟學의 중요한 特徵의 하나가 되었다. 여섯째는 17世紀 官房學以來 一般經濟學과 雙璧를 이루는 比重으로 發達해 온 財政學(Finanzwissenschaft)인데 傳統的 立場을 固守하는 노이마르크(Fritz Neumark), 케인즈主義의인 할러(Heinz Haller), 心理·社會·制度的 側面을 강조하는 쉬필더스(Günter Schmolders) 등이 戰後의 代表的 理論家들이며, 이들을 中心으로 펠(Carl Föhl), 뤼스토우(Rüstow), 콜름(Colm), 크렐러(Krelle) 등 사이에 전개된 租稅 및 財政政策論議는 經濟理論 全般과의 聯關裡에 전개된 水準 높은 內容이어서 前記한 軍政當局에 의한 케인즈의 財政政策이 獨逸社會에 無批判의으로 受容되기 어렵게 한 背景이 되었던 것이다(K.W. Rothschild, 1964).

以上の 獨逸의 戰後經濟學史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敎訓은 케인즈體系의 巨視動學을 消化하되 쉬나이더는 독일적인 것과 스칸디나비아의 功獻을 英글로·색슨系 理論에 接木해서 獨自의인 것으로 構想했다는 底力과 戰爭直後인데도 19世紀의 獨逸經濟學의 傳統이 歷史·價值判斷·方法論·體制·財政思想 등에서 健在해서 外來의 政策思潮가 獨逸의 經濟現實(生産施設不足과 大量失業)에 맞지 않을 때 拒否할 수 있었고 또 獨自의 政策案을 提示할 수 있었다는 點이다.

그러면 여기서 1950年代의 韓國經濟學을 評價하기로 하자. 前記한 바와 같이 1950年代는 韓國經濟學의 새 時代를 여는 章이 됨으로써 특히 번역의 全盛期를 이루었다. 특히 50年代後半부터 60年代初까지 새 傾向의 一般經濟理論書로서 사무엘슨(Samuelson)의 *Economics*를 비롯하여 한센(Hansen), 피구(Pigou), 히스(Hicks), 랑게(O. Lange), 로빈슨(J. Robinson), 헤리스(Harris), 스톤이어(Stonier)와 헤이그(Hague), 보울딩(Boulding), 클라인(Klein) 등의 巨視 및 微視理論의 教科書와 紹介·入門書들이 번역되고, 히스의 需要理論, 듀젠베리(Dusenberry)의 消費理論과 특히 히스의 *Value and Capital*(1939)의 一部(李政在·金容權共譯, 『價值와 資本』(上), 1958) 등 新古典派의 正統理論들이 번역되었다. 그 뿐 아니라 케인즈의 『一般理論』(金斗熙譯, 1955), 스미드의 『國富論』(崔敏基譯, 1957) 등 古典이 번역되었고 經濟史에서는 베버(M. Weber), 애슐리(W. Ashley), 토인비(A. Toynbee), 코울(G.D.H. Cole), 로스토우(Rostow) 등 非마르크스主義系統의 책들이, 思想 및 體制論에서는 슈뎀페터(Schumpeter), 돌(M. Dobb), 하이에크(Hayek) 등이 번역되고 成長·發展論에서는 너시(Nurkse), 루이스(W.A. Lewis), 틴버겐(Tinbergen), 크라우스(Kraus), 해로드(Harrod), 도마(Domar), 칼도(Kaldor), 미드(Meade), 뮈르달(Myrdal), 經濟變動論으로는 한센(Hansen), 듀젠베리(Dusenberry), 하벌러(Harverler), 貨幣理論의 케인즈(Keynes),

피구(Pigou), 로버트슨(Robertson) 등 참으로 多彩로운 翻譯活動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活潑한 翻譯活動이 世界經濟學界의 潮流를 받아들이는 데 여러모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며 이는 韓國經濟學界의 新經濟理論에 대한 知識欲求의 發露가 至大했음을 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過程을 통해서 漸次 우리에게 理論적으로나 應用面에서 理解되기 시작한 케인즈經濟學의 國民所得決定論이 60年代 이후의 經濟學教育과 研究의 발판이 되었음을 是認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理論들이 導入 紹介된 것이 반드시 理論들의 定着·理解의 段階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케인즈의 『一般理論』과 히스의 『價値와 資本』이 번역 출판되었어도 兩書의 關係와 解釋 또는 그 歷史的 意味가 正確히 把握된 것이 아니었고, 슈페터의 『資本主義, 社會主義 및 民主主義』(李相球譯, 1953—一部分譯) 등이 번역되었어도 슈페터의 純粹理論體系는 소개 이해되지 않았으며, 하이에크도 理論經濟學者로서 보다는 『奴隸化的 권』(李廷煥譯, 1959)에 의한 思想面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로빈슨과 칼도, 돔, 랑게가 번역 소개되면서도 그 學派的 系譜나 케인즈經濟學과의 關係가 明示되지는 못했다. 『價値와 資本』에 있어서의 히스로부터 사무엘슨의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1947)—이 책은 끝내 번역이 안됨—로 이어지는 一般均衡論의 展開를 消化하기에는 사무엘슨 말대로 「제분스, 에지워드, 왈라스, 빅셀, 마샬, 피구, 프리쉬(Frisch), 호텔링(Hottelling), 히스와 알렌, 티버젠, 테온티에프로 이어지는 戰前의 傳統」(Samuelson, 1964)에 대한 知識蓄積이 없는 當時로서 無理였다고 理解된다. 결국 이 時期에 있어서 새 傾向의 經濟理論의 定着은 사무엘슨의 *Economics* (金容甲·沈炳求共譯, 『經濟學(上, 下)』, 1957), 히스의 *The Social Framework*, 1952(李海東·李基俊共譯, 『新經濟學入門』, 1955), 스톨니어와 헤이그의 *A Textbook of Economic Theory*, 1957(丁炳然譯, 『新經濟理論』, 1959), 보울딩의 *Economic Analysis*, 1955(朴喜範外共譯, 『經濟分析(上, 下)』, 1959~60) 등의 定評있는 教科書가 輸入 紹介될 뿐 아니라 또 大學에서 실제로 教材로 쓰이기 시작한 60年代 前後부터였다고 推定된다. 이와 같이 케인즈의 巨視理論과 微視經濟學에 대한 消化는 原論的 水準에서의 底邊擴大에서부터 始作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때까지 出版되었던 國內學者들의 經濟原論書들이 相當數에 이른 것은 前記한 바와 같지만 大體로 이들은 舊體制的 日書翻譯物이 많아서 新經濟學의 定着化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4. 60, 70年代의 成長構造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韓國經濟學은 50年代 後半부터 다져진 基盤 위에 새로운 成長期를 맞이했다고 보여진다. 經濟學이 종래 우리에게 인식되어 왔던 것처럼 思想이나 理念 그 자

體단의 學問이 아니라 經濟現象을 科學的으로 分析하는 思考의 能力을 ilter하는 手段으로서의 學問이라는 方向으로의 理解가 보급되기 시작한 轉機는 1960年 前後부터이며, 이와 같은 韓國經濟學의 進路에 轉機를 마련하는 데 寄與한 몇가지 要因이 있었다.

첫째는 위에서 지적한 定評있는 海外的 經濟學教材가 原論的 水準에서 차근히 강의되고 消化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基本思考가 젊은 經濟學徒들에게 消化되어간 것이 60年 前後부터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와 같은 基礎理論의 새 教材使用 뿐만 아니라 各大學의 教科目이 크게 改善되어 특히 經濟數學과 計量經濟學이 등장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50年代末부터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經濟學科에서 이 두 科目이 開講(邊衡尹교수 擔當)되면서 各大學이 類似한 경향을 가지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세째로는 經濟學의 實用的 價値에 관한 認識의 變化이다. 6.25動亂 후부터 戰亂復舊라는 經濟現實의 課題에 자극되어 일찌기 녀시의 번역(朴東燮譯, 『後進國의 資本形成論』, 1953)이 나와 後進國經濟論에 관심이 고조되어 갔지만 60年代에 들어 오면서 루이스(宋仁相編, 『經濟成長의 理論』, 1958; 朴喜範譯, 『經濟計劃의 原理』, 1958), 턴버겐(朴喜範·宋正範共譯, 『經濟開發의 設計』, 1958; 俞仁浩·李政在共譯, 『經濟政策의 理論』, 1960), 뮌르달(李基俊·林鍾哲共譯, 『經濟理論과 低開發地域』, 1960), 메이어와 볼드윈(Meyer & Baldwin) (成昌煥譯, 『經濟發展의 理論』, 1960), 허쉬만(A. Hirschman)(李賢宰譯, 『經濟發展의 戰略』, 1965) 등의 번역소개로 經濟學이 思想이나 原論의 線을 넘어 특히 우리같은 後進國의 經濟成長·發展과 이를 위한 計劃 및 政策樹立에 活用될 수 있는 學問이라는 認識을 높여준 것이다.

네째는 위와 같은 認識에 의하여 經濟學者의 役割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經濟學者가 經濟理論의 教育과 研究以外에 經濟現實의 제문제에 대한 政策的 發言을 하고 參與가 시작된 것이다. 民主黨政權當時의 「産業開發計劃試案」의 作成에서 비롯하여 軍事革命直後에는 貨幣改革, 農業政策諮問 등과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면서는 評價教授團과 혹은 經濟部處의 長官에 이르기까지 廣範한 參與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 60年代부터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다섯번째의 轉機要因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61년에 大學最初의 經濟研究所가 서울商大에 設置되어 이듬해부터 우리나라 大學 最初의 經濟學專門學術誌 『經濟論集』이 季刊으로 발간되기 시작한 사실이다. 종래에도 各大學에 年一回 또는 不定期的으로 발간되는 綜合論文集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大學의 教育機構로부터 別個의 獨立된 法定機構로서 學術(經濟學)研究를 專擔하는 機關이 國立大學에 생긴 것은 當時로서는 始初의 일이었으므로, 教授의 兩大任務의 하나인 學術研究의 成果發表의 機會가 制度的으로 마련된 始初의

契機가 되었다는 점에서 意義가 큰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할 轉機의 要因은 海外留學者들의 歸國에 의한 영향이다. 周知하듯이 50年代까지 經濟學教授陣의 大多數가 日本의 國·私立大學 出身으로 구성되었었고 스미드·만트計劃에 의해 極少數가 美國留學의 經驗을 가질 수 있었으나 當時 우리 經濟學界와 美國學界 간의 距離로 말미암아 學問進展에 實質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60年代부터는 中堅教授들의 相當數가 先進諸國의 留學經驗을 가질 機會가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60年代後半부터는 歐美各大學에서 學位를 마치고 一部는 教育經驗까지 얻은 經濟學者들이 國內大學 또는 研究機關에 들어오기 시작함으로써 國內經濟學界와 先進國學界와의 距離는 그 만큼 短縮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以上の 諸要因이 60年代에 相乘作用을 하여 轉機가 마련된 데다 또한 韓國經濟의 成長經驗 속에서 70年代는 經濟學도 적어도 量的으로는 高度成長을 꾀게 되는데 以下에서는 그 內容을 살펴보기로 하자.

〈表 7〉 期間別·分野別 經濟學文獻 構成(1961~1979)

期間·種類		分野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合計
1961~1965	著書		96	32	10	49	8	—	6	23	5	6	235
	譯書		32	17	1	2	3	—	2	2	2	1	62
	論文		177	96	12	66	67	—	30	95	85	39	535
1966~1970	著書		60	20	4	29	8	—	5	12	12	3	153
	譯書		5	7	1	6	1	—	1	2	1	1	25
	論文		250	152	33	72	149	—	54	216	197	102	1,092
1971~1975	著書		115	37	21	27	34	—	8	34	18	12	306
	譯書		28	10	2	5	4	—	—	4	2	2	57
	論文		386	242	94	105	468	—	109	339	325	161	1,954
1976~1979	著書		105	40	19	36	34	—	12	17	19	10	292
	譯書		20	4	1	2	4	—	—	4	1	4	38
	論文		227	159	67	61	143	—	62	238	141	120	1,049

資料:〈表 2〉와 同一.

그러면 60年代와 70年代의 韓國經濟學은 어떠한 業績을 내놓았는가? 우선 눈에 띄는 것은 論文이 每5年마다(75年까지) 약 2倍의 速度로 증가하고 있다는 點과, 譯書의 減少 대신 著書는 60年代 後半期를 例外로 하면 계속 增加趨勢에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學術論文의 激增現象은 經濟學研究의 正常化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學術論文의 諸分野中 一般經濟學(分類記號 000)分野가 60年代까지 傳統的으로 가장 큰 構成比를 차지하지만 70年代에 와서는 分野(大分類)別 構成比의 順位上 2位로 처지기 시작한다.

한편 成長·發展分野(記號 100番臺)의 相對的 低下와 中間水準 以下이던 國際經濟學分野(記號 400番臺)가 특히 71~75년 사이에는 分野別 構成順位 1位로 急上昇하고 있으며, 國內貨幣 및 財政分野(記號 300番臺)는 相對的으로 順位가 떨어지는 데 反하여, 比較的 關心도가 낮았던 福祉 및 消費者經濟學(記號 900番臺)이 약간 上昇勢를 보이고, 勞動 및 人口分野(記號 800臺)는 60年代 後半에 3位였으나 그 후에는 中位圈에 머물기는 하되 그 比重이 低下되고 있어 70年代 經濟成長의 分配構造와 有關한 듯한 印象이 짙다. 解放後 今日에 이르기까지 韓國經濟學者들의 關心도가 가장 낮은 分野는 적어도 論文의 分布狀況으로 보는 限 產業 및 技術分野(記號 600番臺)의 研究과 意外에도 計量經濟學의 研究(記號 200番臺)이다. 물론 後者は 70年代 後半에 약간 上昇되고 있지만 이 分野의 研究가 印象과는 달리 적어도 學術論文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實績이 나온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 推定할 수 있는 것은 韓國經濟學者들의 關心領域이 60年代와 특히 70年代의 이른바 高度成長期에 「多樣化」되었고 또 現實經濟의 動態와 研究關心領域 사이에 相當한 聯關性이 엿보인다는 點이다. 가령 70年代에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國際經濟學分野는 그 中分類別 內譯으로 볼 때 (71~75年기준) 國際貿易의 理論(記號 410)보다는 그 86%가 貿易去來關係(記號 420)와 外資分野(記號 440)에 集中되어 있는데 이것은 外資 및 貿易依存도가 높아진 韓國經濟의 構造를 그대로 反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國內通貨 및 財政政策分野 論文(記號 300臺)의 相對的 低下에 의해서도, 60年代 以來의 韓國經濟가 특히 70年代는 加一層 國內市場보다는 國際市場에 그리고 內資보다는 外資增大에 의해 主導되어 온 事實들을 反證해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中分類別의 動向에 의한 內譯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經濟學의 基礎分野라 할 수 있는 000臺에서 經濟史分野는 如前히 壓到的 比率을 占하여 60年代 前半에 48%이던 것이 그 後半부터는 61%~69%의 高水準에 있지만 餘他分野에서는 經濟體制論(記號 050)과 思想 및 方法論(記號 030)의 相對的 降下와 純粹理論(記號 010과 020)의 漸增傾向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에 100臺에 있어서는 成長·發展 및 計劃의 理論과 政策(記號 110)이 약간 느는 정도이며 200臺에 있어서는 全般的으로는 論文의 絕對數가 70年代初부터 急增하며 그 中 計量·數理模型(記號 211)이 上昇하고, 統計資料分析(記號 220)은 相對的으로는 이에 뒤진다. 600臺에 있어서는 產業別 研究(記號 630)와 產業組織·政策記號(610)은 60年代 初半부터 上昇趨勢이지만 技術變化에 관한 經濟學의 研究(620)는 微微한 狀態를免하지 못한다. 700臺에서 農業一般에 관한 것이 支配的인 것은 오랜 傳統이며 資源(記號 720)에 대한 關心은 이 역시 70年代 初半부터 두드러진다. 800臺에 있어서는 60年代 後半부터 勞動市場·政策(820)과 특히 70年代初에는 勞組 및 勞使關係(830)가 두드러지지만, 人力訓練·

供給(810)이나 특히 人間資本(850)에서의 研究는 微微한 수준에 있다. 끝으로 900臺에 있어서는 역시 60年代 後半부터 關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厚生·健康·教育(910)과 消費者經濟學(920)보다는 住宅 및 交通政策을 포함하는 都市經濟學(930)과 地域經濟學(940)이 相對的으로 比重이 높다는 點에서 這間에 있어서의 政策路線과의 相關度를 推定할 수 있게 한다.

以上과 같은 研究論文들의 分野別 動態는 60~70年代의 韓國經濟學者들의 單行本著作生産 活動과 比較할 때 그 全般的 趨勢나 變動構造가 多少의 差異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는 基礎分野가 如前히 大分類別로 第1順位이기는 해도 이제는 38% 內外的 安定的 수준을 維持하는 데 比하여 60年代의 國內通貨·財政分野의 증가와 70年代의 國際經濟學分野 및 成長·發展分野의 相對的 增加가 看取되고 있으며, 다음에 譯書의 出版動向에 있어서는 50年代 後半에서 60年初에 이르는 最盛期를 지나자 60年代後半에 急落했다가 70年代 前半에 多少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分野別 大分類構成을 보면 基礎分野의 顯著한 後退(50年代의 67%에서 60年代의 40%와 70年代의 32%)가 印象的이며 여기서도 成長·發展論의 꾸준한 比重과 70年代初부터의 國際經濟學의 急上昇에 比한 國內通貨·財政分野의 相對的 地位下落을 確認할 수 있다.

〈表 8〉 期間別·分野別·言語別⁽¹⁾ 經濟學學位論文 構成(1910~1978)

年 度	分 野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合 計
1897~1909		—	—	—	—	—	—	—	—	—	—	—
1910~1945 ⁽²⁾		0/2	—	—	—	—	—	—	0/2	0/1	0/1	0/6
1945~1950		—	—	—	—	—	—	—	—	—	—	—
1951~1960		2/3	0/3	—	0/4	0/1	—	0/1	0/1	0/1	—	2/14
1961~1965		2/1	0/5	0/1	0/4	0/2	—	1/1	0/2	0/1	0/2	3/19
1966~1970		20/5	7/6	3/6	5/4	1/5	—	2/3	7/4	7/0	0/2	52/35
1971~1975		38/3	10/7	4/12	11/4	12/12	—	12/3	34/9	10/11	6/4	137/65
1976~1978		11/4	4/4	0/6	2/4	4/3	—	6/3	5/3	4/5	5/2	41/34
合 計		73/18	21/25	7/25	18/20	17/23	—	21/11	46/21	21/19	11/11	235/173

資料：〈表 2〉와 同一.

註：(1) 國語論文數(A)와 外國語論文數(B)의 對比(A/B)임. 外國語論文은 外國大學의 學位論文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兩者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고 外國語論文은 英語가 壓到的이고 其他外國語가 약간임.

(2) 1945. 8. 15를 기준으로 區分했음.

다음에는 學術論文의 言語別 構成을 基準으로 볼 때 70年代에 있어서의 韓國經濟學者들의 國際化傾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韓國人 經濟學者들의 外誌掲載論文이 어떠한 狀況에 있으며 그것이 國內誌發表論文들과 어떻게 對比되는가 하는 點을 分

析하여 韓國經濟學의 國際化的 傾向을 推理해 보기로 하자. 美國經濟學會發行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에 실리는 論文主題別 索引을 利用했으므로 國內外國語學術誌를 除外한 大部分의 外國專門誌가 包括된 것으로 믿으나 人名確認上 多少의 錯誤가 있음을 甘受하면서 <表 10>을 作成하였다.

1970년부터 10年間 都合 347篇의 韓人 論文이 外國專門學術誌에 發表되었는데 長期的으로 是 完만한 增加趨勢이지만 그 成長率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分野別 大分類構成

<表 9> 國內誌發表論文의 大分類別 構成(1970~1978.8)

年 度	分類番號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合 計
1970		61	19	3	13	48	—	18	56	39	30	287
1971		61	19	9	15	42	—	14	53	41	33	287
1972		78	36	12	18	83	—	18	66	82	23	416
1973		80	46	28	20	109	—	15	63	76	28	465
1974		85	53	13	19	120	—	17	87	64	42	500
1975		83	86	34	31	80	—	26	76	65	36	517
1976		85	87	29	34	80	—	24	100	63	54	556
1977		121	49	30	26	70	—	35	98	53	43	525
1978		23	23	8	2	13	—	9	46	26	22	172
合 計		677	418	166	178	645	—	176	645	509	311	3,725

資料 : <表 2>와 同一.

<表 10> 外誌發表論文의 大分類別 構成(1970~1980)

年 度	分類番號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合 計
1970		1	5	—	1	5	1	1	—	—	1	15
1971		5	5	1	—	1	—	—	2	1	5	20
1972		5	5	2	4	7	—	3	5	2	6	39
1973		5	6	1	4	5	1	3	—	—	1	26
1974		4	6	9	7	10	3	—	4	4	1	48
1975		5	4	3	3	1	6	3	6	3	1	35
1976		7	1	7	3	4	—	3	—	2	1	28
1977		—	1	1	—	2	—	1	1	1	2	9
1978		—	2	2	—	2	6	1	—	2	—	15
1979		6	4	12	13	6	3	5	2	7	4	62
1980		5	3	10	8	2	8	4	6	1	3	50
合 計		43	42	48	43	45	28	24	26	23	25	347

資料 : AEA,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ubject Index of Articles in Current Periodicals," March 1970~Dec. 1980.

註 : (1) 人名確認에 錯誤의 可能性이 있으므로 誤差가 있다고 봄.

(2) 大部分 在外韓人이나 國內經濟學者의 論文도 포함됨.

(3) 여기서는 500番臺(經營學·會計學分野)의 資料를 포함시킴,

〈表 11〉 國內誌發表論文의 中分類別 構成(1970~1978.8)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합계
000	010	2	1	3	2	3	3	—	5	—	19
	020	3	4	8	9	10	6	11	11	5	67
	030	13	11	10	11	13	12	14	21	3	108
	040	40	44	54	54	58	60	55	76	12	453
	050	3	1	3	4	1	2	5	8	3	30
	소 계	61	61	78	80	85	83	85	121	23	677
100	110	5	3	4	6	8	7	9	9	2	53
	120	13	11	27	37	38	66	68	35	18	313
	130	1	5	5	3	7	13	10	5	3	52
	소 계	19	19	36	46	53	86	87	49	23	418
200	210	1	3	11	15	11	27	17	23	8	116
	220	2	6	1	13	2	7	12	7	—	50
	소 계	3	9	12	28	13	34	29	30	8	166
300	310	3	8	4	6	3	9	16	10	1	60
	320	8	5	7	10	14	16	15	11	—	86
	330	2	2	7	4	2	6	3	5	1	32
	소 계	13	15	18	20	19	31	34	26	2	178
400	410	3	—	7	5	5	5	3	5	—	33
	420	31	25	58	88	98	59	53	42	11	465
	430	4	12	10	6	4	4	6	9	1	56
	440	10	5	8	10	13	12	18	14	1	91
	소 계	48	42	83	109	120	80	80	70	13	645
600	610	10	7	7	9	6	6	11	13	2	71
	620	1	2	5	2	2	5	4	2	4	27
	630	7	5	6	4	9	15	9	20	3	78
	소 계	18	14	18	15	17	26	24	35	9	176
700	710	52	48	58	50	64	62	74	80	33	521
	720	4	3	8	13	23	13	25	16	13	118
	730	—	2	—	—	—	1	1	2	—	6
	소 계	56	53	66	63	87	76	100	98	46	645
800	810	9	3	10	14	6	3	9	3	6	63
	820	18	16	31	24	27	30	20	29	8	203
	830	2	11	27	26	13	20	12	5	7	123
	840	10	8	13	9	14	8	10	11	3	86
	850	—	3	1	3	4	4	12	5	2	34
소 계	39	41	82	76	64	65	63	53	26	509	
900	910	8	4	8	9	7	4	9	11	5	65
	920	2	5	6	1	8	5	8	8	6	49
	930	14	12	8	10	11	14	22	14	6	111
	940	6	12	1	8	16	13	15	10	5	86
	소 계	30	33	23	28	42	36	54	43	22	311
합 계	287	287	416	465	500	517	556	525	172	3725	

資料：〈表 2〉와 同。

〈表 12〉 外誌發表論文의 中分類別 構成(1970~1980)

분류번호	년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합계
		000	010	—	—	—	—	—	—	—	—	—	
	020	1	4	1	4	4	4	7	—	—	6	5	36
	030	—	—	2	—	—	—	—	—	—	—	—	2
	040	—	1	1	1	—	1	—	—	—	—	—	4
	050	—	—	1	—	—	—	—	—	—	—	—	1
	소 계	1	5	5	5	4	5	7	—	—	6	5	43
100	110	4	2	4	2	—	2	1	1	1	3	1	21
	120	1	3	1	3	3	2	—	—	1	1	2	17
	130	—	—	—	1	3	—	—	—	—	—	—	4
	소 계	5	5	5	6	6	4	1	1	2	4	3	42
200	210	—	1	1	1	7	2	6	—	1	8	8	35
	220	—	—	1	—	2	1	1	1	1	4	2	13
	소 계	—	1	2	1	9	3	7	1	2	12	10	48
300	310	—	—	4	3	5	2	3	—	—	10	5	32
	320	1	—	—	1	2	1	—	—	—	3	3	11
	330	—	—	—	—	—	—	—	—	—	—	—	—
	소 계	1	—	4	4	7	3	3	—	—	13	8	43
400	410	2	1	3	3	3	—	1	—	—	3	—	16
	420	—	—	—	—	3	—	2	—	1	1	—	7
	430	1	—	3	—	1	—	1	—	—	1	—	7
	440	2	—	1	2	3	1	—	2	1	1	2	15
	소 계	5	1	7	5	10	1	4	2	2	6	2	45
500	510	—	—	—	1	—	2	—	—	—	1	1	5
	520	—	—	—	—	2	1	—	—	5	2	6	16
	530	1	—	—	—	—	—	—	—	—	—	—	1
	540	—	—	—	—	1	3	—	—	1	—	1	6
	소 계	1	—	—	1	3	6	—	—	6	3	8	28
600	610	1	—	1	2	—	1	2	1	—	3	1	12
	620	—	—	—	—	—	2	—	—	—	—	1	3
	930	—	—	2	1	—	—	1	—	1	2	2	9
	소 계	1	—	3	3	—	3	3	1	1	5	4	24
700	710	—	2	5	—	4	6	—	1	—	1	5	24
	720	—	—	—	—	—	—	—	—	—	1	1	2
	730	—	—	—	—	—	—	—	—	—	—	—	—
	소 계	—	2	5	—	4	6	—	1	—	2	6	26
800	810	—	—	1	—	1	—	—	—	—	1	—	3
	820	—	1	1	—	2	1	—	—	1	1	—	7
	830	—	—	—	—	—	—	—	—	—	2	—	2
	840	—	—	—	—	1	2	2	1	1	3	1	11
	850	—	—	—	—	—	—	—	—	—	—	—	—
	소 계	—	1	2	—	4	3	2	1	2	7	1	23
900	910	—	—	2	—	1	—	—	2	—	1	—	6
	920	1	1	2	—	—	1	—	—	—	—	—	5
	930	—	3	1	1	—	—	—	—	—	2	3	10
	940	—	1	1	—	—	—	1	—	—	1	—	4
	소 계	1	5	6	1	1	1	1	2	—	4	3	25
합 계		15	20	39	26	48	35	28	9	15	62	50	347

資料・註:〈表 10〉과 同一.

에 있어서는 大體로 고른 分布를 보이고 있다는 點 등이 70~78年間の 國內誌發表論文의 構成(表 9)과 차이가 난다. 이 期間에 國內經濟學術誌의 論文이 基礎分野·國際經濟學·農業分野에 集中되어 있고 計量經濟學·產業技術分野가 현저히 뒤지는 등 심한 起伏相을 보이는 데 反해서 外誌發表論文들은 500면臺 以下の 應用分野그룹과 餘他그룹 사이의 集團差가 있을 뿐 比較的의 平等한 分布狀態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論文數가 計量·數理經濟學分野(200臺)이며 基礎分野에 있어서는 43編의 論文中 35편이 純粹理論(微視理論에 13편, 巨視理論 15편, 一般均衡理論 3편, 厚生經濟學 3편, 其他 2편)인 點과 經濟史分野는 4편에 不過한 것 등이 國內誌發表 基礎分野論文의 構成과 두드러진 差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中分類別로 본 100臺 以下の 特徵을 對照해 보면 國內誌가 100臺에서 國別 事例研究(記號 120)에 集中된 데 反하여 外誌論文은 成長「理論模型」(기호 110)과 國別 事例研究(기호 120)의 두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200臺에서는 計量模型에의 集中度가 비슷하고, 300臺에서는 國內誌의 財政學分野에 비하여 外誌論文은 貨幣·金融「理論」에, 400臺에서는 國內誌가 貿易關係에 高度로 集中된 데 반하여 外誌는 貿易「理論」과 國際投資에, 500臺에서는 外誌가 企業金融 및 投資(기호 520)에 집중도가 높고 600臺에서는 國內誌가 產業別 研究인데 外誌에서는 產業組織論에 最大의 關心을 나타내고 있고 700臺에서는 一般農業經濟學에의 集中이 비슷하며 800臺에서는 國內誌가 勞動市場·政策이 最多數인데 外誌에서는 人口經濟學이며, 900臺에서는 都市經濟學에의 集中度가 비슷하다.

以上の 中分類基準으로 볼 때의 外誌發表 韓國經濟學者들의 論文은 純粹理論과 數理·計量模型, 貨幣理論에 가장 많이 分布되어 있고 應用分野들 안에서도 成長理論, 貿易理論, 企業金融에 關心이 높은 反面에 資源問題, 技術變化問題, 經濟體制問題, 勞使問題 등에는 關心이 적다고 推定되는 同時에, 이를 바꾸어 表現하면 純粹理論과 數理·計量理論 쪽에 長技가 없으면 外誌에의 採擇率이 낮다고 보아야 할지 모르겠다. 如何든 이와 같은 韓人에코노미스트들의 國際的 生産活動의 現況은 參考로 50~60年代의 日本人經濟學者의 그것과 比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사토(佐藤)教授가 美國의 經濟學界 學術誌 57種을 調査한 바에 의하면 1954년에 10편에 不過하던 日人經濟學者의 外誌發表論文이 59년에 58편, 64년에 216편, 69년에는 409편이라는 驚異의인 成長率을 確認하고 「輸入·咀嚼의 時期를 卒業하고 日本經濟學이 世界的 水準에서 世界的 學界에 貢獻하기 시작한 것은... 1950年代의 準備期를 거쳐 60年代에 離陸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日本經濟學者들의 外誌參與의 特色은 年齡層이 젊어서 創造能力이 높다는 點과 數理·計量經濟學에 대한 集中傾向이 強해서 높은 水準의 論文일수록 純粹數理經濟學者가 支配하고 있는데 이 分野에서는 日本經濟

學이 比較優位의 域을 떠나서 絶對優位에 達해 있으면서도 이것은 日本經濟學의 強點과 弱點을 同時에 나타낸다고 評한 바 있다(玉野井芳郎, 1971).

우리의 外誌發表論文數나 그 成長率이 日本의 50年代末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直接 比較할 段階는 아니지만 論文分野의 集中傾向으로 純粹理論에 強하고 應用에 弱한 多分히 日本類型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推論이 可能하지만 이는 時間을 두고 볼 문제이지 結論을 내리기에는 아직 時期尙早인 듯하다.

V. 結 語

지금까지 우리는 舊韓末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韓國經濟學의 變遷過程을 各時代狀況과의 聯關 속에서 觀察해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① 舊韓末의 初期導入期에 있어서의 西歐經濟學文獻들은 日本을 濫過한 入門의 紹介書 등이 主宗을 이루고 있으며, ② 이같은 外來經濟思想이 英國으로 말하면 古典派 經濟學初期에 해당되는 18世紀 英正祖期에 燦然히 빛났던 實學派의 經濟思想과 어떻게 連繫되는가의 問題는 어쩌면 우리나라 歷史의 自主的 近代化思想의 系譜를 確認하는 要諦가 될 것이라는 것과, ③ 日帝時代의 韓國經濟學은 亦是 1920年代 以後의 日本經濟學의 亞流마르크스主義의 影響에 다 植民地的 諸條件이 加重된 狀況下에 있었기 때문에 經濟學의 正常的 發達이 屈折되어 理論面이나 科學性보다는 思想性이 더 強調되어 왔고, ④ 解放後 混亂期은 國家體制의 選擇이라는 莫重한 課題를 눈앞에 놓고도 蓄積된 經濟學的 知識의 空白狀態로 말미암아 1930年代 日本의 教條主義의 마르크스經濟思想이 獨舞臺를 이루다시피 되었던 것이며, ⑤ 이같은 의미에서 6.25 以後야말로 學問으로서의 經濟學과 그리고 世界經濟學의 潮流와 接하기 시작한 始作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⑥ 50年代의 準備·整地作業 위에 60年前後의 轉機를 맞아 60年代 後半期부터 70年代에 이르는 本格的인 經濟學의 發展을 적어도 量的으로는 確認할 수 있으며, ⑦ 韓國經濟學의 構造的 變化에 있어서는 現實經濟의 變動과 그리고 海外經濟學界의 움직임과도 相當한 程度로 相關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窺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事實들의 究明過程이 이 論文에서는 過度하게 巨視적으로 흐른 나머지 人波는 보이되 얼굴이 있는 印象을 갖게 되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各時代마다 이른바 스타 經濟學者가 存在해 왔고, 특히 70年代 이후에는 經濟學을 暗記하는 學問이 아니라 經濟의 基本原理를 理解하는 方法으로서 定着化시키는 데 寄與한 韓國型 教科書類의 著述者들(그 例로는 原論에 趙淳, 1974와 李享純, 1981; 國際經濟

學에 金信行, 1977; 貨幣金融論에 朴在潤, 1979 등) 뿐만이 아니라 水準 높은 論文을 一級國際誌에 發表하고 (그 例는 洪元卓, 1976; 宋丙洛, 1977; 朴秀彬, 1979 등) 外國에서 經濟學 教材를 發刊하거나 定評있는 外國人의 數理經濟學 教科書의 誤謬를 改訂하게 하는 등(例로는 柳莊熙, 1976; 鄭基俊, 1974)으로 豫備 스타 經濟學者들이 續出하고 있으며, 「古典經濟學 · 마르크스經濟學 · 近代經濟學을 하나의 鎔鑪 속에서 相互媒介시킴으로써」 投下 勞動價値論과 限界效用價値論의 辯證法的 總和에 의하여 「價格理論을 最終적으로 그리고 永久히 解決지워 놓았다」고 宣言한 『第二資本論』(林元澤, 1978) 같은 前人未踏의 境地에 이른 經濟學者까지 나왔다는 것을 결코 過少評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本格的인 經濟學研究의 歷史와 系統이 너무 짧아서 이같은 個別業績評價의 方法(great man approach)이 客觀性을 갖기에는 時期尙早의 感이 없지 않기 때문에 次後의 課題로 남겨놓았을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韓國經濟學에 관한 이제까지의 論議에서 우리가 導出할 수 있는 結論은 무엇인가? 韓國經濟學의 成長은 이를 歷史的 脈絡에서 볼 때는 導入期에서 6.25에 이르기까지를 經濟思想의 時代라고 한다면 그 이후는 經濟學의 理論性내지 科學性이 強調되어 온 時代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며, 前者를 日本經濟學時代라고 한다면 後者를 美國經濟學時代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經濟學이 理論이나 實用性을 無視하고 思想性 그것도 마르크스主義의 東歐的 亞種(레닌 · 스탈린主義)의 教義體系 一邊倒로 되었던 것도 문제여니와, 그렇다고 經濟學의 道具性만을 強調하는 것도 역시 限界가 있음을 오늘날은 누구나가 痛感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같은 의미의 經濟學의 危機意識은 비단 우리나라 經濟學의 문제일 뿐 아니라 70年代 이후 世界的인 아우성이 되어 있고, 一部에서는 主流經濟學의 過度한 專門化로 因해서 發生한 缺陷을 是正하기 위하여 他社會科學과의 協同을 통한 學際的(interdisciplinary) 研究의 開發과 超學的(transdisciplinary)인 社會理解의 方向을 提示하기에 이른 것도 周知하는 바와 같다(Boulding, 1970).

經濟學이 綜合社會科學的 體系 안에 統合되어야 한다는 命題는 經濟學者들의 觀察對象인 經濟現象이 社會全體의 下位體系 또는 部分시스템에 속한다는 點에서 볼 때 너무나 當然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經濟學의 誕生 以來 계속되어 온 課題였고, 오늘날 처음 提起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歷史上的 偉大한 經濟學者들이 한걸같이 이 문제를 思索하고 煩惱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 例는 Walras, 1896~98; Pareto, 1916), 古典派든 新古典派든 經濟現象을 價格機構를 中心으로 考察하는 正統經濟學을 批判하고 經濟現象은 階級(社會主義) · 國家 · 民族(歷史主義) · 文化(制度主義) 같은 要因을 軸으로 해서 分析해야 된다고 하는 非主流思想은 이미 19世紀 中葉 古典派時代의 末期부터 登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現

대版的 各種 批判經濟學에서 新古典派經濟學의 數學的 形式性·技術性·非歷史性·非人間性·非政治性·非社會科學性을 攻擊하고 政治經濟學·道德科學·價值判斷·民族經濟學을 다시금 부러뜨게 되었다는 것은 新古典派時代의 終末을 告하는 晚鍾의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經濟學 一般 다시 말하면 世界經濟學의 運命을 韓國人이 責任질 수 있을 만큼의 知識蓄積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本論에서 본 바와 같은 性格의 韓國經濟學의 歷史的 背景과 짧은 經驗에 비추어 볼 때, 現段階의 우리 水準으로서는 統一社會科學을 構築할 力量은 到底히 發揮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設令 그것을 試圖했다 한들 자칫하면 科學 以前的인 正體不明의 原理로 逃避하여 虛學으로 그칠 公算이 큰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숨에타가 社會科學은 그 個個部分이 하나의 統一的 計劃으로 合流할 수 있는 「建築學的」인 全體像이 아니고 「基本的으로는 (하나의) 社會科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諸科學이 있을 뿐」이라고 함으로써 個別專門科學(discipline)의 發展 없이는 學問의 발전이 不可能하다고 본 見解(Schumpeter, 1915)는 특히 우리같은 段階의 社會科學徒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論旨에서 韓國經濟學은 主流든 非主流든 現代經濟學의 理論과 分析技法을 可及의 多樣하게 받아 들어 이를 消化하는, 앞으로 相當期間에 걸친 蓄積過程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留意해야 될 但書가 있으니 그것은 첫째, 主流 新古典派의 主舞臺인 美國經濟學의 몇가지 特徵 중에서 過度한 細分化에 의한 實證研究가 強調되는 理由가 美國經濟學界의 數의 規模와 地理的 넓이가 廣濶해서 어지간한 地方(provincial)大學에서는 地域社會에 관계되는 應用的 研究에 專念해야지 一流(elite)大學에서와 같은 純粹理論의 綜合的 研究로는 頭角을 나타낼 수 없게 되어 있고, 또한 이같은 實證研究에 있어서 多分히 無時間的·沒歷史的 假定들(timeless, a-historical assumptions)이 茶飯事로 이용되는 것은 美國社會가 「完全」에 가장 가까운 社會라는 信念이 은연중에 潛在되어 있는 등 美國의 文化的 風土 條件과 有關하다는 해석(H. Johnson, 1977)을 銘心해야 되겠다. 우리처럼 自然地理나 社會的 地理가 한치 건드면 모든 것이 可視의일 만치 협소한 條件下에 있어서 專攻分野別의 지나친 細分化는 그 價値가 半減할 것이기 때문에 各分野間의 相互依存性이 더 強調된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林鍾哲, 1976).

둘째로 이같은 主流經濟學의 消化過程에 있어서는 그 理論을 輩出한 思想的 根源을 함께 吸收해야 된다는 點이다. 쉐러(Max Scheler, 1926)가 말하는 手段의 知識(Herrschaftswissen)만을 取하고 知性的 知識(Bildungswissen)이나 精神的 知識(Erlösungswissen)을 無視해 버린다면 完全한 知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明若觀火하다. 新古典派든 케인즈經濟學이

든 그 工學的 側面만을 習得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包容하고 있는 思想體系 속에서 이를 理解해야 될 것이다.

세계는 經濟學의 定着이 系統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點이다. 이 말은 다르게 表現하면 經濟學者들이 어떤 學派에의 歸屬을 스스로 明示할 수 있을 만큼 系譜的인 研究가 集中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當該學派나 學者의 思想體系全般에 관한 知識을 體得하지 않고는 不可能할 것이다. 現代經濟學의 諸系流中에서 徹頭徹尾한 케인지안, 徹頭徹尾한 시카고學派 또는 徹底한 케인브리지學派, 그리고 徹底한 急進派 經濟學者...가 나와야 되겠다. 우리 歷史에 있어서 思想時代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亞種의 마르크스主義 以外에는 韓國經濟學은 古典派의 自由經濟主義도 歷史學派의 保護主義도 그리고 그 밖에 어떠한 經濟思想도 本格的으로 體得하지 못한 채 스쳐갔을 뿐이며, 現代經濟學에서 조차 有用한 技術만 따내면 된다는 無公害의 絕對中立이라는 立場이 存立할 수 있을 것인가는 自問해 볼 일이다. 韓國經濟學의 이같은 體臭없는 脫色的 態度로 말미암아 學者들의 現實經濟에 관한 發言이나 政策提案들이 表現言句만 달랐지 結局은 共通의 技法으로 相互間에 內容이 類似해지고 實務家들의 그것과도 別般 差異가 없게 되는 原因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케인즈의 表現대로 「지금 이 瞬間에 사람들은 보다 根本的인 診斷(fundamental diagnosis)을 渴望하고 있다」(『一般理論』, p. 383)고 할만큼 昨今の 韓國經濟는 歷史上 未曾有의 困境에 處해 있다. 이 「根本的인 診斷」은 經濟學의 技術과 思想 兩面의 發顯을 要求하는 것이거니와, 眞正한 의미의 經濟學의 土着化를 위해서도 이같은 學派의 形成은 必須的인 要件이 아닌가 한다.

參 考 文 獻

- 李基俊編著, 『資料 韓國經濟學發達史』, 1980.
 朴承鎭·朱定均共著·俞承兼校閱, 『最新經濟學』, 普文社, 1908.
 朝鮮學術院, 『學術』(解放紀念論文集), 1946.
 尹行重, 『現代經濟學의 諸問題』, 博文書館, 1943.
 京城帝大創立五十週年記念事業會, 『琨碧はるかに』, 1975.
 朝鮮銀行 調査部, 『經濟年鑑』, 1948.
 崔虎鎭, 『經濟商學』(유네스코韓國總覽), 1957.
 玉野井芳郎, 『日本の經濟學』, 1971.
 早坂忠·正村公宏共著, 『戰後日本の經濟學』, 1974.

- 長幸男, 「日本の經濟思想」, 『經濟學大辭典 III』, 第2版, 1980.
- 俞吉濬, 『西遊見聞』, 第四·十四篇, 1895.
- 俞吉濬, 「競爭論」(1883年執筆), 『俞吉濬全書』, 第四卷, 1971.
- 趙璣濬, 「實學思想의 社會經濟的 認識」,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第1篇 第3章, 1977.
- 姜在彥著·鄭昌烈譯, 『韓國의 開化思想』, 1981.
-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 1973.
- 姜萬吉, 『朝鮮後期商業資本의 發達』, 1973.
- 韓國經濟學會, 『經濟學研究』, 第1卷 第1號, 1953.
- 高承濟, 「1930年代의 經濟學振興運動」, 『民族文化研究』, 第12號, 1977.
- 趙璣濬·姜命圭, 「卷頭對談—經濟學의 發展과 時代意識」, 『서울評論』, 69號, 1975. 3. 13
- 林鍾哲, 「解放後 韓國에 있어서의 經濟學研究 및 教育」, 『社會科學論集』, 第1輯, 1976.
- 高橋誠一郎, 「西洋經濟學の日本移植と日本經濟學」, 『經濟學史略』, 1953.
- 金龍德, 「實學派의 社會經濟思想」, 『朝鮮後期思想史研究』, 第二編, 1977.
- 月刊朝鮮, 「特輯—한구實學思想」(특히 鄭昌烈·朴忠錫·尹絲淳교수의 論文), 1981. 11.
- 東亞日報社, 『開港 100年年表·資料集』, 1976.
- 林元澤, 『第二資本論』, 1978.
- 邊衡尹, 『韓國經濟의 診斷과 反省』, 1980.
- 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1981.
- 李享純, 『經濟學入門』, 1981.
- 金信行, 『國際經濟論』, 1977.
- 朴在潤, 『貨幣金融原論』, 1979.
- 黃秉泰, 「資本主義와 韓國社會」, 『資本主義와 民主政治』, 第四部, 1981.
- 서울大 經濟學教授 15人共同執筆, 『經濟學研究入門』, 1981.
-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hapter 24, 1936.
- M.C. Lovell, "The Production of Economic Literature: An Interpret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1 (1973), 27-55.
- A.W. Coats,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 1960, 555-574.
- A.W. Coats, "The Role of Scholarly Journal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An Essa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9 (1971), 29-44.

- R.V. Eagly, "Economics Journals as a Communications Network",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12 (1975), 878-88.
- R.V. Eagly, "Contemporary Profile of Conventional Economist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6 (1974), 76-91.
- G. Stigler and C. Friedland, "The Citation Practices of Doctorates in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1975), 477-507.
- R. Quandt, "Som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s Journal Litera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1976), 741-55.
- M. Bordo and D. Landau, "The Pattern of Citations in Economic Theory 1945~68: An Exploration towards a Quantitative History of Though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1 (1979), 240-253.
- G. Stigler, "Statistical Studies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Essays in the History of Economics*, Chapter 3, 1965.
- F. Machlup,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nowledge in the United States*, Chapters I~III, 1962.
- J.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art I, 1954.
- J. Schumpeter, *Vergangenheit und Zukunft der Sozialwissenschaften*, München u. Leipzig, 1915. (Japanese translation, 1980.)
- M. Scheler, *Die Wissenschaftsformen und die Gesellschaft*, Leipzig, 1926, S.250. (Cited from F. Machlup, *op. cit.*)
- J. Parrish, "Rise of Economics as an Academic Discipline: The Formative Years to 1900," *The Southern Economic Journal*, July 1967, 1-16.
- J. Dorfman, "The Role of the German Historical School in American Economic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5, 17-39.
- Harry G. Johnson, "The American Tradition in Economics," *Economics and Business*, Vol. 16 (1977), 17-26.
- H.G. Johnson, "How Good was Keynes' Cambridge," *Encounter*, August 1976.
- M. Bronfenbrenner, "Economic Thought and Its Application and Methodology in the East: The State of Japanese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56, 389-398.

- Thomas Sekine, "Uno-Riron: A Japanese Contribution to Marxian Political Econom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t. 1975, 874-877.
- OECD, *Social Science Policy: Japan*, 1976.
- K.W. Rothschild, "German Pioneers of Modern Macroeconomics and National Income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4 (Part 2, Supplement), 1-33.
- E. Gutenberg, *Das Wunder Deutschlands* (II), 1. Kapitel, 1959. (Japanese translation, pp.11-20)
- K. Boulding, *Economics as a Science*, Chapters 3-7.
- J. Spengler, "Notes on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Economic Idea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Spring 1970, 133-151.
- Won Tak Hong, "Distortions and Static Negative Marginal Gains from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6.
- Byung Nak Song, "The Production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International and Historical Comparisons," *Econometrica*, 1977.
- Ki Jun Jeong, "Estimating and Testing a Linear Model When an Extraneous Information Exis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June 1978.
- A. Chiang,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2nd Edition, 1974,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See the mention on Ki Jun Jeong of S.N.U.)
- Soo Bin Park (with A. Zellner), "Minimum Expected Loss (MELO) Estimators for Functions of Parameters and Structural Coefficients of Econometric Model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Society*, March 1979, 185-93.
- Jang Hee Yoo (with D.G. Ott and A.F. Ott),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1976.
- "Subject Index of Articles in Current Periodical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8 (1970)~Vol. 18(1980).
- L. Walras, *Etude d'economie sociale*, 1896.
- L. Walras, *Etudes d'economie politique appliquée*, 1898.
- V. Pareto, *Trattato di sociologia generale*, Vol. 2, 1916. (English translation, *The Mind and Society*, 1935.)
- P. Samuelson,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Foreword," 1964.

〈附表 1〉 分類體系*

- | | |
|--|--|
| 000 General economics; Theory; History; Systems | 500 Administration; Business finance; Marketing; Accounting |
| 010 General economics | 510 Administration |
| 020 General economic theory | 520 Business finance and investment |
| 030 History of thought; methodology | 530 Marketing |
| 040 Economic history | 540 Accounting |
| 050 Economic systems | |
| 100 Economic growth; Development; Planning; Fluctuations | 600 Industrial organization; Technological change; Industry studies |
| 110 Economic growth; development; planning theory and policy | 610 Industrial organization and public policy |
| 120 Country studies | 620 Economics of technological change |
| 130 Economic fluctuations; forecasting; stabilization; inflation | 630 Industry studies |
| | 640 Economic capacity |
| 200 Quantitative economic methods and data | 700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
| 210 Econometric, statistical, and mathematical methods and models | 710 Agriculture |
| 220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al data and analysis | 720 Natural resources |
| | 730 Economic geography |
| 300 Domestic monetary and fiscal theory and institutions | 800 Manpower; Labor; Population |
| 310 Domestic monetary and financial theory and institutions | 810 Manpower training and allocation; labor force and supply |
| 320 Fiscal theory and policy; public finance | 820 Labor markets; public policy |
| | 830 Trade unions; collective bargain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
| 400 International economics | 840 Demographic economics |
| 410 International trade theory | 850 Human capital |
| 420 Trade relations; commercial policy;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 900 Welfare programs; Consumer economics;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
| 430 Balance of payments; international finance | 910 Welfare, health, and education |
| 440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foreign aid | 920 Consumer economics |
| | 930 Urban economics |
| | 940 Regional economics |

* 美國經濟學會刊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分類體系인.

<附表 2> 經濟學論文의 中分類別 構成

분류번호	년도	1897~	1910~	1915~	1951~	1961~	1966~	1971~	1976~	合計
		1909	1945	1950	1960	1965	1970	1975	1978	
000	010	30	24 (1)	8	4 (1)	5	7 (1)	11 (1)	5	98
	020	0	0	0	15 (2)	13	15 (2)	27(10)	22 (5)	111
	030	5	83	18	26	30 (1)	39 (3)	51 (6)	35 (4)	301
	040	0 (1)	118(33)	43	74 (3)	114(11)	153(21)	239(29)	134 (6)	979
	050	3	65 (1)	17	2 (1)	2 (1)	8 (1)	12	14 (2)	129
	소 계	38(1)	290(35)	86	121 (7)	164(13)	222(28)	340(46)	210(17)	1,618
100	110	0	0	0	4	13 (1)	17 (4)	23 (6)	18 (2)	88
	120	36	225(26)	90	11 (3)	33(31)	95(21)	163(15)	108(14)	871
	130	3	71 (1)	18	14	16 (2)	11 (4)	32 (3)	14 (3)	192
	소 계	39	296(27)	108	29 (3)	62(34)	123(29)	218(24)	140(19)	1,151
200	210	0	1 (2)	1	1	3	6 (4)	34(30)	25(23)	130
	220	1	5	2	3 (1)	7 (2)	19 (4)	23 (7)	17 (2)	93
	소 계	1	6 (2)	3	4 (1)	10 (2)	25 (8)	57(37)	42(25)	223
300	310	7	50 (5)	19	4	16 (6)	20 (5)	21(10)	19 (7)	189
	320	14	30 (5)	4	6 (1)	28 (4)	30 (4)	49 (4)	23 (3)	205
	330	0	3 (2)	1	1	12	11 (2)	18 (3)	9	62
	소 계	21	83(12)	24	11 (1)	56(10)	61(11)	88(17)	51(10)	456
400	410	1	1 (1)	0	0	8	8 (5)	12(10)	5 (4)	55
	420	5	5	18	0	19(11)	77(12)	333(20)	83 (2)	585
	430	0	0	2	51 (1)	7 (1)	12 (1)	26(10)	13 (3)	81
	440	0	0	3	2 (1)	11(10)	28 (6)	51 (6)	27 (6)	151
	소 계	6	6 (1)	23	7 (2)	45(22)	125(24)	422(46)	128(15)	872
600	610	2	15 (5)	17	2 (1)	11 (2)	24 (2)	32 (6)	26 (1)	146
	620	0	1	2	1	3	3 (1)	11 (5)	6 (3)	37
	630	13	23(21)	9	3	12 (2)	23 (1)	51 (4)	22 (4)	187
	소 계	15	39(26)	28	6 (1)	26 (4)	50 (4)	94(15)	54 (8)	370
700	710	21	294(190)	102	32 (5)	74(18)	184(18)	247(30)	159(25)	1,399
	720	5	28	14	0	2	13	51 (8)	45 (6)	172
	730	2	0	0	0	1	1	3	3	10
	소 계	28	322(190)	116	32 (5)	77(18)	198(18)	301(38)	207(31)	1,581
800	810	0	9 (5)	1	0	3 (1)	49	35	14 (4)	121
	820	1	67(44)	11	7 (1)	34 (5)	72 (4)	109(67)	42(14)	428
	830	1	61 (6)	7	7	17 (2)	22 (1)	92 (3)	23 (1)	243
	840	1	24 (1)	2	2 (1)	11 (9)	36 (2)	43(10)	17 (7)	166
	850	3	6	1	1	1 (2)	11	14 (2)	18 (1)	60
	소 계	6	167(56)	22	17 (2)	66(19)	190 (7)	293(32)	114(27)	1,018
900	910	1	12 (3)	2	2	7 (2)	29	31 (1)	22 (3)	115
	920	0	34(12)	6	1 (1)	4 (1)	6	21 (4)	21 (2)	113
	930	0	10(11)	0	0	13 (7)	37 (2)	47 (7)	35 (7)	176
	940	1	4 (4)	1	0	5	26 (1)	42 (8)	25 (5)	122
	소 계	2	60(30)	9	3 (1)	29(10)	98 (3)	141(20)	103(17)	526
合計 (外國語)		157 (1)	1,648 (379)	419 (0)	253 (23)	667 (132)	1,224 (132)	2,229 (275)	1,218 (169)	7,815 (1,111)

資料; <表 2>와 同一.

〈附表 3〉 經濟學著書의 中分類別 構成

분류번호	년도	1879~	1910~	1945~	1951~	1961~	1966~	1971~	1976~	合 計
		1909	1945	1950	1960	1965	1970	1975	1979	
000	010	7	3	13	34	64	26	55	60	262
	020	0	1	0	3	4	3	6	13	30
	030	0	2	1	7	4	2	6	6	30
	640	0	11	12	9	19	26	43	25	145
	050	1	0	6	2	5	3	5	1	23
	소 계	8	17	32	55	96	60	115	105	488
100	110	0	0	1	13	8	8	7	15	52
	120	1	7	10	22	20	10	25	24	119
	130	0	0	2	0	4	2	5	1	14
	소 계	1	7	13	35	32	20	37	40	185
200	210	0	4	2	8	9	4	20	18	65
	220	0	0	0	0	1	0	1	1	3
	소 계	0	4	2	8	10	4	21	19	68
300	310	0	3	1	11	19	12	8	7	61
	320	1	0	2	14	22	16	17	28	100
	330	0	0	1	1	8	1	2	1	14
	소 계	1	3	4	26	49	29	27	36	175
400	410	1	0	0	4	3	2	11	12	33
	420	0	1	0	1	1	1	14	10	28
	430	0	0	0	2	3	4	6	8	23
	440	0	0	0	0	1	1	3	4	10
	소 계	1	1	0	7	8	8	34	34	93
600	610	0	0	0	2	2	3	5	5	17
	620	0	0	0	0	0	0	1	1	2
	630	1	0	0	1	4	2	2	6	16
	소 계	1	0	0	3	6	5	8	12	35
700	710	0	20	12	9	22	12	33	13	121
	720	0	0	0	0	0	0	1	4	5
	730	0	0	0	6	1	0	0	0	7
	소 계	0	20	12	15	23	12	34	17	133
800	810	0	0	0	0	0	4	3	2	9
	820	0	2	0	0	2	1	3	9	17
	830	0	0	0	4	2	5	7	4	22
	840	0	0	1	1	1	1	5	2	11
	850	0	0	0	0	0	1	0	2	3
	소 계	0	2	1	5	5	12	18	19	62
900	910	0	0	0	2	4	2	4	3	13
	920	0	0	0	0	1	0	5	2	8
	930	0	0	0	0	1	1	2	1	5
	940	0	0	0	0	0	0	1	4	5
	소 계	0	0	0	2	6	3	12	10	33
合 計	12	54	64	156	235	153	306	292	1,272	

資料：〈表 2〉와 同一.

〈附表 4〉 譯書 및 譯論文의 中分類別 構成

분류번호	년도	1897~	1910~	1945~	1951~	1961~	1966~	1971~	1976~	合計
		1909	1945	1950	1960	1965	1970	1975	1978	
000	010	10 (6)	1 (1)	4 (2)	16	8	2	5	4	53 (9)
	020	0	4	3	30	4	0	5	0	49
	030	0	15(11)	28 (1)	23	10	3 (2)	8	1	91(14)
	040	2	1 (1)	4	13	2	2	4	1	29 (1)
	050	0	16	17	15	8	0	6	4	67
	소 계	12 (6)	37(13)	56 (3)	97	32	7 (2)	28	10	289(24)
100	110	0	0	2 (1)	15	13 (1)	7	8	2	48 (2)
	120	2 (2)	0	7 (5)	3 (1)	2	0	18(16)	7 (6)	39(30)
	130	0	1 (1)	1 (1)	3	3	0	0	0	8 (2)
	소 계	2 (2)	1 (1)	10 (7)	21 (1)	18 (1)	7	26(16)	9 (6)	95(34)
200	210	0	0	0	3	1 (1)	1	2	1 (1)	8 (2)
	220	0	0	0	0	1	1 (1)	0	1 (1)	3 (2)
	소 계	0	0	0	3	2 (1)	2 (1)	2	2 (2)	11 (4)
300	310	2	0	0	6	1	2	4	2 (1)	17 (1)
	320	0	1	1 (1)	4	1	3	1	0	11 (1)
	330	0	0	0	0	0	1	0	1	2
	소 계	2	1	1 (1)	10	2	6	5	3 (1)	30 (2)
400	410	0	0	0	3	2	1	3	1	10
	420	0	2 (2)	0	0	2 (1)	0	16(16)	3 (3)	23(22)
	430	0	1 (1)	1 (1)	1	0	0	1	0	4 (2)
	440	0	3	3 (3)	0	0	0	1 (1)	4 (1)	11 (5)
	소 계	0	6 (3)	4 (4)	4	4 (1)	1	21(17)	8 (4)	48(29)
600	610	0	0	0	0	2	1 (1)	0	0	3 (1)
	620	0	0	0	0	0	1	0	0	1
	630	1 (1)	1 (1)	0	0	0	0	0	1 (1)	3 (3)
	소 계	1 (1)	1 (1)	0	0	2	2 (1)	0	1 (1)	7 (4)
700	710	0	1 (1)	3 (2)	3	2	2	5 (1)	1 (1)	18 (5)
	720	0	0	0	0	0	0	3 (3)	3 (1)	6 (4)
	730	0	0	0	1	0	0	0	0	1
	소 계	0	1 (1)	3 (2)	4	2	2	8 (4)	4 (2)	25 (9)
800	810	0	0	0	0	0	0	0	1	1
	820	0	0	0	0	0	1	0	0	1
	830	0	2 (2)	5 (4)	4	0	0	1	0	12 (6)
	840	0	0	0	2	1	0	2 (1)	0	5 (1)
	850	0	0	0	0	1	0	0	0	1
소 계	0	2 (2)	5 (4)	6	2	1	3 (1)	1	20 (7)	
900	910	0	0	0	0	0	1	0	1	5
	920	0	0	0	0	0	0	1	0	1
	930	0	0	0	0	0	0	2 (1)	0	2 (1)
	940	0	0	0	0	1	0	0	0	1
	소 계	0	0	0	0	1	1	3 (1)	1	9 (1)
合計(外國語)		17 (9)	49(21)	79(21)	145 (1)	65 (3)	29 (4)	96(39)	39(16)	534(114)

資料;〈表 2〉와 同一.

〈附表 5〉 韓國經濟學教授의 年齡層構成

年 齡 層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合 計
國公立大學(專任講師)	12 (1)	17(14)	17 (6)	23 (4)	17 (2)	9 (0)	9 (0)	6 (0)	110(37)
私立大學(專任講師)	7 (6)	24(12)	39 (8)	40 (3)	32 (0)	25 (0)	20 (0)	19 (0)	206(29)
合 計	19 (7)	41(26)	56(14)	63 (7)	49 (2)	34 (0)	29 (0)	25 (0)	316(66)

資料：文敎部，『國公立大學(校)敎員名簿』，1981. 6. 1 現在.

文敎部，『私立大學(校)敎員名簿』，1980. 6. 1 現在.

註：46~65歲=147名，316名의 43.35%.